



표지 이야기

- 04 작가(시각)의 글 + 글·사진 김진경 (공예가)

열다 / 계절을_마음을_문화예술을_여는 컬럼

- 08 제주의 스토리가 곧 본질이다 + 글 대런 사우스콧 (제주위클리 편집장) + 번역 현유라 (재단 기획팀)

읽다 / 지역문화전문인력에 대한 점검과 전망

- 14 “지금 여기에서, 문화로 우리 삶에 구현할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필요하다”
+ 글·사진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 21 창조제주를 위한 문화 활용 전략과 전문 인력의 역할
+ 글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겸임교수)
- 27 “너저 아버지 뭐 하시노?” + 글·사진 이창원 (인디053 대표)
- 32 급변하고 있는 제주 문화예술계, 문화예술인의 역할은? + 글 이장희 ((사)글로컬문화콘텐츠연구소장)

만나다 / 반갑습니다

- 36 그녀, 루아 Lua가 부르는 제주의 목소리 + 글·사진 한형진 (제주의 소리 기자)

살다 / 제주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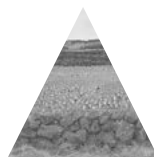
- 40 우도와 나의 유년시절 + 글 고충석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 사진 양모란 (재단 기획팀)

있다 / 예술작품을 통해 만나는 제주 말(語)

- 50 문학의 예술성 더해 주는 감칠맛나는 ‘제주어 상징부사’
+ 글·사진 김순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그리다 / 新 제주문화지형도 03. 제주의 문화 공간

- 54 문화 공간을 읽다. + 글·사진 현순실 (달리도서관장)



녹이다 / 내 인생의 책 한 권

- 62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 + 글 고성기 (시조시인)

여보다 / 작가의 방(房)

- 66 화가 강요배
德으로 돌아가 그림 그리니, 그림과 사람이 두루 평안하네
+ 글·사진 조선희 (재단 기획팀장)

예술과 비평

- 68 문학 | 오승철 시조집 『터무니 있다』 + 글 홍성운 (시조시인)
75 시각 | 제라진갤러리 '우리동네 무근성' + 글·사진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80 공연 | 세이레극단 부부출연 연극 「늙은 부부이야기」 + 글·사진 강용준 (극작가)

뉴스와 이슈

- 84 재단 & 문화예술계 소식
- 87 **갤러리** 문화예술街
- 89 **편집 후기** 못다 한 이야기

삶과 문화 Vol.58 2015 가을호

삶과문화 2015년 통권 58호 등록번호 제주마 01005호 · ISSN 1599-5321 등록일 2002년 1월 4일 발행일 2015년 9월 발행인 현승환
발행처 제주문화예술재단 (690-8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이도일동) TEL.064.800.9112 FAX.064.800.9139 www.jcaf.or.kr
편집위원 권영옥, 김범훈, 나기철, 이현미, 현순실 편집기획 제주문화예술재단 기획팀 디자인/제작 한빛종합인쇄 064.762.0221



작품 제목 : 클림트의 작업실

재료 : 색점토, 나무, 철사, 버려진 옷, 그 외 혼합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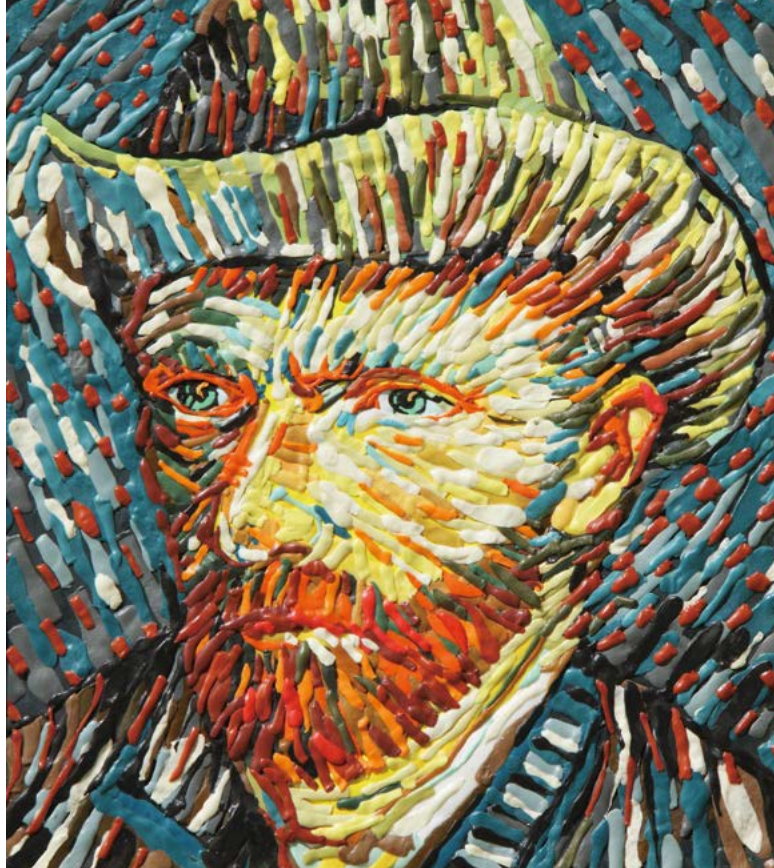
제작년도 : 2013

크기 : 120 cm x 90 cm

+ 글·사진 김진경 (공예가)

주로 10여 년을 살다가 비로소 마음속에 깊숙이 담아두었던 못다 한 꿈을 다시 꺼내게 되었다. 큰 아이가 색점토를 무척 좋아했던 터라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 공감하며 할 수 있는 미술놀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손가락 힘의 강약과 방향에 따라 동물이나 일상의 사물을 만드는 미술 놀이는 곧 나의 작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내 자신에게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생기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다.

나는 깊은 고뇌 속에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머물렀을 예술가의 작업 공간을 담아내고 싶었다.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디오라마 형식으로 구성하고 예술가의 모습과 작품을 인형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중섭, 반 고흐, 클림트, 프리다 칼로 등에 대해 책을 읽어보고 영상 자료도 최대한 찾아보았다. 느끼는 대로 주인공을 인형으로 만들고 작업실의 소품까지 하나하나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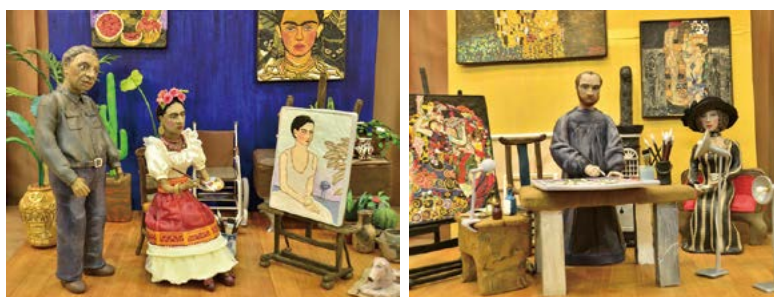


작품 제목 : 반고흐의 자화상

재료 : 색점토

제작년도 : 2013

크기 : 30 cm x 20 cm



작품 제목 : (좌) 프리다 칼로의 작업실

(우) 클림트의 작업실

재료 : 색점토, 나무, 철사, 버려진 옷, 그 외 혼합재료

제작년도 : 2013

크기 : 120 cm x 90 cm

특히 이중섭 편은 그가 느꼈을 마음의 상처와 절박한 현실, 외로움, 좌절과 같은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도록 노력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제주도에서의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의 그림 속에 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다. 나는 깊은 존경심을 품고 이중섭의 소 그림 등을 묘사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색감을 사용했는지 배울 수 있었다. 나도 처음에는 색점토라는 재료로만 표현했지만, 점점 재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혼합 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 예술가들의 인형 옷은 재활용 센터에 버려진 옷을 이용한 업-사이클 작업으로 진행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소재와 융합한 작업을 통해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낡고 해진 사물의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인형 작업을 통해 주인공의 철학, 운명은 물론이고 주인공을 떠올렸을 때 상상되는 표정과 정신, 또는 그 이상을 담아내고자 한다. 나의 관찰력과 상상력으로 표현되는 인물의 재탄생인 셈이다.



작품 제목 : 반고흐 작업실 재료 : 색점토, 나무, 철사, 버려진 옷, 그 외 혼합재료 제작년도 : 2013 크기 : 120 cm x 90 cm

앞으로는 나무, 색점토, 천 외에도 흙이나 금속 등 다양한 재료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 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재료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인형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스케치를 꼭 거쳐야하는데 단순한 스케치가 아닌 그림 작업도 함께 하고 싶다.

올해로 제주도의 농촌마을에 정착한 지 3년. 풍산콩 농사도 처음 지어 보면서 농부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있다. 농부들의 장화, 작업복, 농기계들을 보노라면 삶의 경건함, 숭고함과 함께 고색창연함도 느껴진다. 이러한 삶의 진실한 모습을 담아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싶다. 또한 내가 작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꼭두조각상 인형은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 때 사용하는 상여를 장식하는 나무 조각상으로 서양의 천사와 같은 의미이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거나, 거꾸로 서서 연희를 하는 형상, 무사의 모습을 한 형상, 시종을 드는 형상, 봉황의 날개와 뱃이 불꽃처럼 하늘로 올라가 영혼을 인도하는 봉황상 등 또 다른 여행길을 떠나는 이와 함께 하여 영혼을 위로하고 나쁜 기운을 없애 슬픔과 아픔을 이겨낸다는 꼭두 인형의 의미와 형상을 작업으로 표현해보았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이 세상이 아닌 초월적 세상을 연결하는 존재로 떠나는 자와 보내는 자를 따뜻하게 비추는 조각상으로 작업하였다. 삶의 문외



작품 제목 : 『위로』

재료 : 나무, 철사, 색점토, 재활용 플라스틱 등 혼합 재료

제작연도 : 2013

크기 : 100 cm x 90cm



작품 제목 : (좌) 로댕의 작업실

(우) 반고흐의 작업실

재료 : 색점토, 나무, 철사, 버려진 옷, 그 외 혼합재료

제작연도 : 2013

크기 : 120 cm x 90 cm

PROFILE



- 서울출생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디자인협회전
- 2014 신진여성문화인상 수상
- BPW 세계여성대회 제주컨벤션센터 제주 전
- 양평군립미술관 양평의 봄 전
- 예술의전당 명성황후 전
- 예술의전당 세계의스타 전
- 서울 MBC 제19대 총선 선거방송 국회의원 얼굴작업
- 제주 옷뜨르 축제 전
- 인사동 갤러리 스카이엔 하안정글 전
- 인사동 갤러리 수 한여름밤의꿈 전
- 서울인형전시회 COEX 전 등 전시회
- 199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학과 졸업

Jeju's stories are its essence

**The focus must be inward if the island is
ever to carve its own place in global society**

+ By **Darren Southcott** (Editor-in-Chief, The Jeju Weekly)

As a foreign Jeju resident, it is a question that is often asked of me: What can Jeju do to become a global city? My response: Why does Jeju want to be a global city? The rationale tends to appeal to what Jeju should be aspiring to rather than what Jeju is or has been. We should aspire to Hong Kong's banks, Dubai's shopping malls or Singapore's English skills.

Former colonies all, these megapolitan phoenixes and lauded models of globalization arose from the ashes of their former selves, a Pyrrhic victory Jeju must avoid. While some eyes light up with talk of the land sales, construction contracts and casino takings, most outside of the governing class are lukewarm at best. Far from Luddites, they merely want the right kind of development — on their own terms. To be clear, from paved roads and running water to shipbuilding and semiconductors, Korea's progress has been welcome and astounding, but the fetishization of "progress" has come at a cost, weakening communal bonds and neglecting heritage. With bitter memories of colonization, war and national division — and, locally, the Jeju Massacre — tradition is often the antithesis of betterment for many, as seen in the 1970s New Village Movement, and even the 18th-century Seohak movement.

Yet Jeju's memories must not be forgotten. Auschwitz survivor Elie Wiesel knows well that the seeds of our future are found in tradition, and therein is the wisdom handed down by our forebears. "Without memory, there is no culture. Without memory, there would be no civilization, no society, no future." But Jeju is losing its memory, and thus its future. The drive to move blindly forward dislocates the present from the past, and the Free International City is realized in ordinance only, anathema to the bed of tradition that is the DNA of the island. This is not a Jeju problem per se, but a problem of global capital knowing the price of everything and the value of nothing. And we are all party to it in some way.

Despite boasting one of the richest shamanic heritages in the world, Jeju's shrines are neglected and even vandalized. Amidst the cultural revitalization of Jeju's old town area, historic buildings are destroyed to make way for hotels and shopping districts. Developers' dream of building towers into Jeju's skies and fences around its fields and beaches. Even Jeju's oreum are under threat, with developments looming at their bases and erosion threatening their peaks. In this pathological rush to globalize, the yuan



▲ 출처 :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제공

investment does little to address social inequalities and even increases social division through exclusive enclaves and commodification of island heritage in theme parks. The short-term benefits may be quantifiable — one-time investments and part-time jobs — but selling off the family silver compromises future autonomy and sustainability, begging the question: Freedom for whom in this “Free International City”?

When I think of freedom, I think of inherent confidence and openness borne of a true understanding of worth and essence. Not only are free cities confident, they are vibrant and driven by cultural activism. They represent sustainable and inclusive futures where hopes and dreams are voiced by a diversity of mouths free of self-conscious marketing slogans. Rather than building higher and higher into the skies, Jeju should look down to its streets to foster the artists and entrepreneurs in its midst through cheap rents and reoccupied urban spaces.

Jeju can surely punch well above its weight, yet while its skyscrapers will never reach the heights of its cosmopolitan cousins, it can surely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m on other terms. And this is the crux: While Jeju can surely aspire to be a pseudo-Hong Kong, Hong Kong can never be Jeju. Understanding this, in policy and spirit, is to have faith in Jeju’s true voice, coming both from within its multiplying high-rises and from behind its retreating stone walls. Embedded in the grassroots, Jeju’s traditions already contain the seeds of its freedom. If nourished and provided fertile ground, such as in the flourishing Wondoshim art enclave, they can continue to blossom in the years ahead, a fruit as

plump as the island's mandarins. So, as Jeju jostles for position at the heart of an Asian region leading the next century, it can rest assured that its future is already rooted in place, in the volcanic soils tilled by generations.

According to the Bruntland Report (1992), sustainable developmen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Our future needs, those of our descendants and future Jeju Islanders, are not only environmental, as in the classic reading of this text, but also cultural. What is the meaning of freedom if a proud heritage is neglected before being reproduced, packaged and sold?

On Jeju, these all intertwine: Jeju's oreum, gotjawal and Mt. Hallasan are not only monuments to the miracles of nature and volcanology, but at their essence they are also the fruit of the Jeju people's rich storytelling and religious traditions.

The next generation has the right to inherit this bountiful land, and it is the duty of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l Jeju residents to bequeath its stories intact. Jeju may never become a Free International City, but nothing is as universal as a good story, and the island has plenty of those to tell.

▼ 출처 : 사진가 강정호 제공



제주의 스토리가 곧 본질이다

제주가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구축하려면 ‘안’을 들여다보아야

+ 번역 **현유라** (재단 기획팀)

사람들은 종종 제주에 사는 외국인인 나에게 묻는다.

“제주가 국제도시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제주는 왜 국제도시가 되려고 하나요?”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제주가 반드시 이뤄야 하는 모습’을 호소한다. 제주가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었는지에서 그 이유를 찾지는 않는다. 홍콩의 은행들, 두바이의 쇼핑센터들, 싱가포르의 영어 구사능력을 간절하게 바란다는 것이다.

모든 옛 식민지들은 그리스 신화 속 ‘피루스 왕의 승리’를 이뤄냈다. 즉 과거 잿더미에서 다시 부흥해 불멸의 거대도시와 극찬 받는 세계화의 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실속 없는 승리’에 불과한 것으로 제주는 ‘피루스 왕의 승리’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 몇몇이 부동산 거래, 건축계약, 카지노 입주 등에 눈에 불을 켜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통치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 이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러다이트(영국의 신기술 반대자)와는 반대로 이들은 단순히, 각자의 이익에 따라 개발을 원하고 있다.

포장도로와 조선, 반도체로의 물결에서 이뤄낸 한국의 발전은 놀랄만한 일이었고 환영받아 왔다. 그러나 명확히 하자면 ‘발전’의 물신화(物神化)는 결국 공동체 결속을 약화시키고 문화유산을 경시하는 대가를 치르게 했다.

식민지, 전쟁, 분단, 특히 제주는 지역적으로 4.3 사건의 비참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전통을 개선과 향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심지어 18세기 서학(西學) 운동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제주의 기억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 아우슈비츠 생존자 엘리 바이젤(Elie Wiesel)은 “기억이 없는 문화도 없다. 기억이 없이는 문명도, 사회도, 미래도 없다.” 라고 말했다. 우리 미래의 씨앗은 전통에서 찾을 수 있고, 거기에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주는 기억을 잃고, 따라서 미래도 잃고 있다.

맹목적으로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욕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현재를 뒤틀리게 한다. 결국 국제자유도시는 이 섬만이 가지고 있는 DNA인 전통의 기반을 배반하고, 단지 법령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이는 제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자본 논리의 문제이다. 세계의 자본은 모든 것을 가격으로만 판단할 뿐 가치를 알지 못한다. 우리도 이에 일부 책임이 있다.

제주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민속신앙의 유산을 자랑할 만한 곳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주의 신을 모시는 당(堂)을 무시하고 훼손했다. 제주 구도심지역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려는 시도를 하는 와중에도 호텔, 쇼핑지구에 길을 내주며 역사적 건물들을 파괴했다.

개발자들은 제주 하늘을 뚫는 고층빌딩을 세우려 하고 초원과 해변 주위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 제주의 오염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다. 개발은 제주 오염 밀동을 깔고 봉우리들을 침식시킨다.

이렇게 병적으로 세계화를 급하게 이루려는 상황에서 중국 위안화의 투자는 사회 불평등마저 조장하고 있다. 즉 중국 자본은 배타적인 소수 이민자사회와 테마파크 내 제주 문화유산의 상업화를 통해 사회적 분리를 심화시킨다.

일회성의 투자와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로 나타나는 단기적인 이익은 측정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주의 보물을 팔아버리는 것은 미래의 자율권과 지속가능성을 결국 양보하는 일이 되고 만다. 결국 “‘국제자유도시’의 ‘자유’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라는 질문을 구걸할 수밖에 없다.

자유를 생각할 때, 나는 가치와 본질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된 내재된 자신감과 개방성을 떠올린다. 자유로운 도시들은 자신감에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행동주의에 이끌려 움직이기 때문에 활기차다. 자유도시들은 남을 의식하는 마케팅 슬로건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양하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소리 내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제시한다.

제주는 하늘을 뚫고 점점 더 높아지는 건물들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시선을 내려 저렴한 임대료와 공간 재점유를 통해 예술인과 모험적인 기업가들을 양성해야 할 거리를 보아야 한다.

제주는 분명 도약할 수 있다. 제주의 고층건물들이 설령 사촌격인 다른 국제도시들의 높이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제주는 분명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어깨를 겨루며 설 수 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제주가 ‘짜퉁 홍콩’이 되기를 동경할 수는 있지만, 결코 홍콩이 제주가 될 수는 없다. 이를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늘어나는 고층건물들과 허물어지는 제주 돌담에 가려진 제주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풀뿌리에서부터 박힌 제주의 전통은 이미 자유의 씨앗을 내포한다. 이 자유의 씨앗은 앞으로도 계속 수십 년간 꽃을 피울 것이다. 그리고 제주의 감귤처럼 속이 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약, 번성하고 있는 원도심 예술 지역공동체들처럼 풍요로운 땅이 제공되고 영양분이 충분하다면 말이다.

그래서 제주는 다음 세기를 이끄는 아시아 지역의 중심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때, 안심할 수 있다. 이미 각 세대에 의해 배양돼온 화산섬 제주에 미래가 뿌리내렸다는 것을 확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브런트랜드 보고서(Brunntland Report)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그들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하는 미래세대의 능력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미래의 필요, 즉 우리 후세와 미래의 제주 섬주민들의 필요는 환경적(브런트랜드 보고서에서 전형적으로 읽을 수 있는)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성격을 띤다. 자랑스러운 유산이 재생산되고, 포장되고, 팔리기도 전에 무시된다면 과연 '국제자유도시'의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주 땅 위에서 모든 것들은 뒤엎혀있다. 제주오름과 꽃자왈, 한라산은 기적적인 제주 자연과 화산학의 기념비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제주인의 풍부한 스토리텔링과 신앙적 전통의 결실인 것이다.

다음 세대는 이 풍요로운 땅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제주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대물림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의무는 비단 정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제주는 어쩌면 국제자유도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주가 품고 있는 좋은 스토리만큼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 제주는 얘기할 만한 많은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섬이다. 섬과 문화

※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 출처 : 정신지 제공

“지금 여기에서 문화로 우리 삶에 구현할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필요하다”

+ 글·사진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 세 명의 젊은 연구자들이 International Society of City and Regional Planners, 견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그리고 서울시의 후원으로 개최한 국제도시 계획 컨퍼런스 “Beyond Big Plans” (2015. 3. 12. ~ 15, 서울시청, 사진제공 : BBP 조직위원회) 5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4일간 연인원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공공(公共)정책토론회였지만, 엄연히 정부가 주최하는 공(公)적인 공청회는 아니다.

영화 『친구』만 보더라도 이미 머리가 굳어 버린 어른(교사)은 보통 “너그 아버지 뭐하노?” 또는 “직업이 뭐야?”라고 전형적으로 묻지만, 아직 말랑하기 때문에 명료한 머리를 가진 7살 막내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에게 묻는다. “아빠, 오늘은 무슨 일 했어?” 그에 대한 답을 찾다보면 대부분, 정말 객관적으로 말해서 “회의 여러 번 했어.”이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이잖아. 내일하고, 빨리 들어와서 나하고 놀아.”라는 말에는 야근에 대한 변론의 논점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좀 더 눈치 있는 둘째는 건너뛰고, 나이에 비해 아직 순진한 중3 첫째 놈이 “아빠 연봉 0천만원 돼? 00엄마는 0천만원이라던데.”라고 직구를 날리거나, 아빠의 ‘절친’이면서 돈 버는 수준은 하늘과 땅차이인 아빠 친구들과 비교할라치면, 아내의 마음속에 이미 “아빠는 돈은 아저씨들만큼 많이 못 받지만 문화정책을 다루고, 공공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잖아.”라는 대답이 준비되는 것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지금은 대학원에 다니는 조카가 초등학교 때 식당에서 “왜 항상 이모부는 돈 안내고 우리 아빠만 돈 내?”라고 던진 돌직구에 맞고, “이모부는 너랑 잘 놀아 주잖아.”라는 처형의 당황한 말이 덮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아내는 알고 있기 때 문일 것이다.

“최소한 당신들은 돈을 벌어야 하는 압박은 없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공공기관이어서 짤릴 염려 절대 없고 좋잖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놀아달라는 막내아들에게 내가 밤늦게까지 열정을 쏟아 일하는 이유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만 설명한다면, 내 삶은 무너져 버릴 것 같다. 아내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공적인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로 인해 세상은 더 좋게 바뀔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는 냉소적인 ‘반(半)공무원’이 되어버릴 것 같다.

그렇다면, 나를 지탱해주는,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의 원천인 ‘공공성’¹⁾은 과연 무엇일까? 문화재단에서 일하면서 특히 최근에 자주 만나는 장면들에서, 정말 문화정책, 문화행정, 또는 우리가 하는 문화사업이 공공성을 갖는가 또는 인정받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된다. 이 글은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서 공공성을 갖자는 너무나 식상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서 구현하거나 지향해야 할 공공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자는 연구업무 담당자의 잘난 척도 아니다. ‘이 시대에 문화로 일하는 사람들이 구현해야 할 공공성이 무엇인지 정해보자’는 동종업계 동료들에 대한 제안 정도일 것이다. 뒤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해보겠지만, 공공성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²⁾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면 1. 세운상가 재생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BBP(Beyond Big Plan) 워크숍³⁾

- ▷ **김해보** : (침을 튀겨가며 유럽의 참가자들에게 한국에서의 ‘공공’의 개념은 ‘시혜적인 정부 주도행정’ 중심으로 경도되어 있어서, 사회계약설에 전통이 있고 시민사회 영역까지 포괄하는 서양의 ‘Publicness’와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The publicness means,...
- ▷ **영국에서 공부한 한국 참가자 1** : (짜증내며) 지금 시대에 한국이나 서양이나 다 비슷한 상황이지 뭐가 굳이 다르다고 하십니까?
- ▷ **정부의 도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참가자 2**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침술요법 접근 전략을 적은 서울시 세운상가 재생 계획을 살펴보다가) 어! 여기 정말 서울시의 계획서에는 공공부문과 구분되게 민간부문이라고 따로 명시하고 있네요! 우리는 민간이네요.
- ▷ **외국인 참가자 1** : 우리는 지금 도대체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워크숍의 주체는 누구지요? 공공정책 워크숍인데 왜 여기 공무원은 없나요?

공공의 자원(돈이든 시간이든 공간이든)이 투입될 계획이 있거나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 측 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시민사회나 분야별 전문가들이 공공정책토론회라는 명목으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안하고, 잘하면 새로운 법률이나 예산사업으로 정책화된다. 정부가 주최하지 않더라도 내용적으로 공공의 것을 다루면 보통 공공정책 토론회라고 한다. 물론 공공행정 주체가 개최하는, 공식적으로 꼭 거쳐야하는 절차로서 ‘공청회’는 엄연히 따로

1) 여기서 이미 내가 생각하는 공공성이란 “공적인 일을 정의롭고 더 좋게 구현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였지만,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행정학뿐만 아니라 법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합의되지 않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조대엽 교수의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한국사회 제 13호 1집, 2012년)과 이병량 교수의 “문화정책과 공공성”(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 18권 제 3호, 2011년)에서의 주장을 종합하여 ‘형식적 차원으로서 공공성~공개성’, ‘내용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공익성’, ‘절차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공민성’을 차례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2) 백완기,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법문사, 2008

3) 세운상가 재생을 주제로 세계도시계획가협회와 서울시의 후원으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 BBP : Beyond Big Plan은 재미있게도 3명의 연구자들이 의기투합하여 ‘국제적으로 조직’ 해낸, 소위 집단지성 모임이었다. 필자에게 이 행사의 전말은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보다 시민사회, 또는 개인과 정부가 공공의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해주는 계기였다. 결국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아래 장면은 전체 행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요소들을 짜깁기한 것이다.

존재한다. 이때 공공성을 구현하는 주체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민간과 엄격히 구분되는 ‘정부’만 해당된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공공성은 ‘정부에 관한 : governmental’ 것을 뜻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성은 ‘형식적 차원의 공공성’ 또는 ‘공개성’이다. 공공성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한 개인의 소유에 의해 타인의 접근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사적영역이라면,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공적영역에서는 정부가 그런 공공성을 구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간섭의 부재로서 자유’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자나, ‘지배의 부재로서 자유’를 지향하는 공동체주의자들 간의 이견이 있다.

문화영역에서는 이런 형식적 공공성, 즉 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거나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부터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문화가 공공영역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로 돌아가게 한다. 문화적 공론장이 정치적 공론장으로 발전하였다는 하버마스의 논의에 기대지 않더라도, 문제반정이나 국민교육헌장으로 문화정치를 펼친 우리나라의 왕조나 군사정부의 사례만 보더라도, 문화는, 존 듀이의 공사구분을 적용하면,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서만 관계되지 않고 널리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공공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화의 성격이 바뀌어 최근에는 문화상품으로서 사적 이익의 원천이 되는, 문화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또한 문화가 공공 영역에 속하는 공공재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식적 차원으로서 공공성이 ‘공개성’의 가치를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때 필요한 문화전문 인력들의 자질은 공평무사한 ‘문화행정가’로서의 자질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개성만으로 문화의 공공성이 오롯이 구현되는가?

장면 2. 공공부문 정상화, 카드바우처, 문예진흥기금 관련 정책세미나

- ▷ **청와대 대변인** : 하반기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문화, 농림, SOC 분야가 우선 개혁 대상입니다.
-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 담당자** : 문화융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문화이용권 사업은 카드바우처 발급사업으로만 한정하여 수혜대상자를 늘릴 것입니다.
- ▷ **문예진흥기금 지특회계 전환 관련 정책세미나 토론자** :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문예진흥기금은 늘 기금존치 평가에서 그 운영 타당성과 효율성을 지적받습니다.

문화정책이 달성해야 할 ‘내용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을 곧 문화가 가지는 ‘공공의 가치’ 즉 ‘공익성’으로 치환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처럼 문화정책 분야에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최근 예술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활용 가치를 중시하는 도구주의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것은 위에서 보듯이 행정 공무원들에 의해 또는 국민들에 의해 그 동안 줄곧 제기되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일 것이다. 가치 논쟁은 매우 공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 문화재단들에게는 그들의 사업이 달성한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는 매우 현실적인 이슈이다.

반면,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공공부문도 시장과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공공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공공성의 요소가 되었다. 사실 그 점이 공무원보다는 더 효율적이라는 기대를 업고 문화재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창작이 아닌 문화행정을 다루어야 할 공공주체이면서 문화재단들은 그들이 달성해야 할 내용적 차원의 공공의 가치들을 행정의 언어로 제대로 서술해내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설정한 공공성 지표, 즉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2015. 7. 23,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연습실, 사진제공 : 서울문화재단) 문화관련 공공정책 토론회에서 문화의 가치로 구현할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란 쉽지 않다.

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 되고 있다. 그나마 드물게 있는 문화의 공공성 관련 논의는 주로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결론에 다다르는데, 결국 그 ‘본질적인 공공성’이 무엇이나에 대한 문제가 미제로 남는다.⁴⁾

김창수(2009)는 문화공공성으로서 달성되어야 할 하위 개념으로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는 창의성** **인간의 문화적 기본 권리와 계층, 인종, 연령, 성별로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보장하는 다양성**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성**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설정하였다. 문화의 ‘내용적 차원의 공공성’ 가치들이 객관적인 측정과 비교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어떤 식으로든 평가는 이루어진다. 관료제의 속성상 공적자금이 소요된 정책사업에 대해 평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상이 모두 그렇듯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무리가 따르고 결과적으로 누구도 원치 않는 엉뚱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⁵⁾

이병량(2011)은 내용적 차원으로서 공공성은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자체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획득되는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문화정책의 공공성의 현황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근거한 문화향수 경험 실태 추이와 문화교육 경험 실태 추이로 평가해보려고 시도한다. 그나마 이 두 지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 즉 사업수행 결과(주로 예산 투입량) 자체를 바로 공공성 달성의 상태로 왜곡하여 제시할 수는 없는 지표여서 다행이다. 대부분 행정공무원들, 특히 성과주의 예산 관점에 투철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예산 집행의 결과가 바로 달성된 사업의 성과로 ‘보고’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문화복지 수준 제고’라는 내용적 공공성 달성을 위해 ‘문화이용권 카드바우처 발급 수량의 확대’로 등치시키려고 한다. 문화재단들이 그것의 부적절함을 누차 주장하지만, 요지부동인 기획재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공공성의 가치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무엇일까? 단지 기획재정부 관료들만 설득의 대상일까? 아니면 대대수의 국민들도 문화의 공공성 가치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위 문화행정이라는 행위의 공공성은 어디에 있는 가치인가?

4) 김정수 교수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본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에서 그 동안 문화정책과 관련된 담론은 문화, 예술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지만 행정에 관해서는 비전문가인 인사들에 의해 주로 다루어져왔다는 것이다. 행정학도의 시각에서 볼 때, 문화·예술 전문가들에 의한 문화정책 논의에서 가장 취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공공성이라는 주제이다”라고 적고 있다.

5) 김정수, 『문화행정의 환상과 실상』



▲ 자본주의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부조리를 담담히 보여주는 장우재 연출의 연극 「햇빛사위」(2015. 7. 9. ~ 7. 26, 남산예술센터, 사진제공 : 남산예술센터) 너무나 '공'(共)적인 동교는 '공'(公)에 질리고 '사'(私)를 거부하며 아파트에서 투신하고, 너무나 '사'(私)적인 광자는 '공'(共)을 부정하고 '공'(公)을 약용하며 '사'(私)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동교를 그리워하며 휘두르던 자기의 칼에 죽는다.

민간 전문가라고 동원된 문화재단의 직원에게는 행정이 상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문화사업을 생각해내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일 때가 있었다. 이제는 그 문화적 기획의 본질적인 가치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의 역량이 요구된다. 안 그러면, 스스로 한 일들의 공공성을 제대로 주장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 동안 문화정책에서 문화정책에 투입된 예산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시되었던 많은 지표들로 그 가치들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여기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성이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가치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떤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쯤에 선, 실용적 자유주의자 존 듀이에게 있어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의 민주주의적 가치란 결국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끌어 줌으로써 개성 있는 자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가치이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연합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을 통해 연합된 행위의 결과가 갖는 의미가 전달되고, 새로운 유대가 형성되며 공동의 욕망과 목적이 만들어진다. 인간이 되기를 배우는 것은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감각을 익히는 것을 뜻한다. 우리에게 의사소통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사회적 탐구의 방법 같은 것은 처음부터 개발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⁶⁾ 여기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문화로 치환해볼 수 있다. 하버마스의 문화공론장이나 송호근 교수가 지적한 조선후기 '문해인민의 탄생' 또한 시민사회의 문화적 발전으로 치환해 볼 수 있다. 김세훈 교수가 지적하듯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예술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한 사회의 성찰적 시민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 존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⁷⁾

6) 정창호, 이유선, 「역자 해제」, 『공공성과 그 문제들』, p.253~254

7) 김세훈, 「공공성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공공성 :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메시스, 2008

장면 3. 「햇빛 샤워」에서 동교와 광자의 죽음⁸⁾

- ▷ **구청직원** : 그 동안 동교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온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구청 차원에서 확대하기 위해 봉사자들에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구청장님의 관심이 아주 커요. 상징성이 크니까, 복잡한 계산은 내가 옆에서 다 해 줄 테니, 동교가 심사위원이 되어야 해요.
- ▷ **동교의 양아버지** : 베푸는 것도 다 셈이여. 이참에 여태 우리 연탄 나간 만큼 돌려받아야지.
- ▷ **동교** (광자와 술을 마시며) 어떻게 누가 얼마나 착한지 심사를 해요? 남들은 왜 그걸 나누어주는지 묻지만 저는 그냥 그래요. 아버지는 저에게 세상을 가르쳐 주신다고 술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 왔어요. 저는 나와 관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나눠 주고 그냥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죽고 싶어요. (괴로워하다가 연탄 기부자들의 기부 내역을 장부로 적어서 아버지에게 남겨주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다)
- ▷ **광자** (드디어 아영으로 개명하고, 백화점 의류매장의 매니저로 승진까지 했지만, 동교의 환상을 보고 괴로워하다가 식칼을 수건에 감싸고 동교 양어머니에게 찾아간다) 동교가 죽던 날 집 나가기 전에 무슨 말을 했나요?
- ▷ **동교의 양어머니** :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아이구...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더니....아이구....(차를 떠다)
- ▷ **광자** (동교 양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다가, 준비해 온 식칼로 양어머니 옆구리를 찌른다. 이어 동교 양아버지를 찌르러 들어갔다가 실랑이 끝에 자기 목이 찢려 죽는다)

이 글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시대 고발 연극을 남산예술센터에서 보게 되었다. 연극 「햇빛 샤워」가 이야기하는 심오하고 다양한 동 시대 고발 중에서도, 공공행정 영역 안에 있는 필자의 양심을 찌르는 부분을 기억해서 적어보았다.

신자유주의 시장의 득세 속에서 민간영역과 경쟁해야 하는 정부 공공부문이, 특히 최근에 이길 수 없는 효율성 가치에 대신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민성' 가치이다. 모든 공공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거나 심지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집행되는 것은 신문을 장식할 미담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권 재창출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공'은 스스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여야 함과 동시에 민간영역을 또한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계도하거나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부 공공주체의 역할을 왕조시대라면 계몽군주 또는 잘하면 성왕과 같은 주체(Actor)이겠지만,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특히 거버넌스의 시대라면 주체가 되기보다는 다른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의 숨겨진 기반 즉 플랫폼이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정권 재창출이 지상최대의 목표일 수밖에 없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본인 또는 본인으로 대변되는 행정주체가 그러한 공공성 구현의 '멋진 주체(Hero)'가 되어야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비극의 주인공은 죽지 않고, 동교가 죽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애초 사적인 관계없이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즉 완전한 공적인 존재인 개인이 존재하거나 하겠지만, 어딘가 협동조합 만들기를 꿈꾸며 동네 할머니들에게 연탄을 나누어주던 동교를 죽인 것은 누구일까? 구청장의 명을 받은 구청 직원, 아니면 핏줄만큼은 아니지만 끈끈한 관계를 바라는 교회 권사 양어머니, 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셈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양아버지...? 결국 자기의 여성성까지도 팔아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적 욕망을 이루었던 광자도 죽어버렸다. 자기가 그렇게 갈구했던 새로운 자아를 돈으로 샀는데 말이다.

8) 남산예술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햇빛 샤워」 관람 후, 이 글의 논지에 맞추어 기억나는 대사와 장면들을 짜깁기한 것임.

우리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완성된 미담’을 발굴하는 명목으로 지금도 ‘동교’를 죽이는데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를 해치우기 위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복지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창의성이라는 이름으로 ‘고객님’의 정체성과 상관없는 껍데기를 강요하며 ‘광자’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조대엽 교수와 같이 사회학적 관점 또는 정치학적 공공성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주제와 가치 차원에서 ‘공민성’을 공공성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한다.⁹⁾ 이는 공개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¹⁰⁾ 절차 차원의 가치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지지를 등에 업은 자본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명분을 뒤집어쓰고 시민사회의 탈정치화를 부추기는 관료주의 행정은 생활세계의 모든 부문에서 국가에 의해 시혜적으로 주어지거나 시장에서 구매하는, 식민지화된 삶을 살아가는 ‘시민 고객님’을 낳을 뿐이다.¹¹⁾ 조대엽(2012)은 공공의 영어표현 public의 라틴어 어원인 publicus는 영어 people의 어원인 populus의 형용사이므로 공공성의 제 1요소가 공민성인데 현대성의 전환에 따른 공민성의 재구성은 생활민주주의로의 재편에 주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민주주의, 생활예술을 이 시대의 대세로 받아들이는 문화행정가가 고민해야 할 공공성 가치, 즉 공민성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내가 사는 빌라 앞에는 두개 아파트 단지의 붉은 벽돌담이 만든 예쁜 오솔길이 있다. 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때, 소위 이면도로 기부채납, 즉 사유재산권의 유예로 만들어진 공공공간이다. 일곱 살짜리 막내 녀석은 그 길에 ‘공룡꼬리길’이라고 자기만의 이름을 붙였다. 나는 매번 지나다닐 때마다 깊이 눌러놓은 ‘문화기획자’로서의 욕망이 발동한다.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스프레이 라커로 그려진 WXY 류의 낙서를 지우고, 붉은 벽돌 담에 소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진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디서 허락을 맡아야 할 것 같다.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할 동사무소? 공원 만드는 것도 반대했다는 아파트 주민회? 일단 마음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저질러 볼까? 노원구 마을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신청해볼까? 그럼 주민들은 우리끼리만 논다고 할까? 멋진 예술가를 찾아야 할까? 결과가 멋있지 않으면 용서 받지 못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해오는 ‘시민’이 있다면 그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조금 고민될 것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님’이라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안내할 것이고, ‘예술가 고객님’이라면 재단의 공공예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지원하라고 일러주는 편이 가장 쉬울 것이다. 그 ‘시민’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내 삶의 단편을 바꾸는 ‘문화활동가’ 같은 면모까지 기대하는 것은 ‘직장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일까? 

9) 조대엽,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조”, 한국사회 제13집 1호, 2012년

10) 특히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정치화되면서 동시에 탈정치화된 행정 체계

11) ‘생활 세계의 내부 식민지화 : the inner colonization of life world’는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성찰적 시민주체 회복의 필요성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다.

창조제주를 위한 문화 활용 전략과 전문 인력의 역할

+ 글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지역의 경제적 부흥이 시급한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 발전의 개념은 양적 성장이나 능률성 등을 가리켰으나 성숙 단계에서는 지역 내 형평성 제고나 균형 개발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며, 이후 환경이나 생태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특히 국제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필요한 이른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역의 살길이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고 있다.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의 유치 또는 메가 이벤트의 개최 등 많은 방안들이 고민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방식이 문화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를 활용하여 동력을 찾고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 당위성을 갖기도 하지만 그 실천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는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상 그 실체의 모호함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주민들의 경험의 부재, 성과나 효과의 추상성, 그리고 지역의 전문성 결여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문화를 활용한다는 취지에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공유, 활용방안에 대한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 그리고 협업과 의사결정의 합리화 등이 따라주어야 한다.

이에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며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 같이 도움이 되고,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성 그리고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문화의 활용 방안을 주요 영역별로 나누어 각각의 의의와 전개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은 결국 문화 전문인력이 활약할 영역이기도 하고 또한 정책의 영역이며, 시장 그 자체이기도 하다.

문화의 활용 영역

● 문화공간의 조성 과 운영

문화공간은 모든 문화 활동의 물리적 기반이다. 최근에는 지역 곳곳에 문화기반시설이 들어서고 있으며,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대안적인 문화공간들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주민센터나 복지시설 그리고 마을회관 등 일반 시설에서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른바 '문화적 공간'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이 있다 해서 그 자체가 곧 문화행위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어서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야 실질적인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지역의 수많은 시설들이 지역의 특성과 역량,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후죽순처럼 지어졌다가 운영난으로 방치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도 보게 된다. 따라서 문화공간은 지역의 현실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성되고, 프로그램과 운영에도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도의 경우도 과거 천혜의 자연 자원이 그 특성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최근 제주의 독창적인 문화공간들이 그 건축적 미학을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문화공간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운영할 기획, 홍보, 운영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은 과거의 기능적인 예능교육이 아니고 체험과 과정을 중시하는 관객 및 주민 교육으로서의 영역을 이야기한다. 특히 문화향유의 경험이 별로 없는 농어촌의 특성상 일방적인 문화 프로그램의 제공과 수동적 향유를 넘어 주민들의 문화 향유능력을 키우고 문화를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용이 절대적이다. 아울러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촌유학의 한 방편으로도 가능하며 주



▲ 2015 꿈다락토요문화교실

5일제 수업으로 인한 창의적 활동의 확대는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키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준다. 또한 사회 각 분야 구성원들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활용은 더욱 중요하다. 제주 역시 각급 학교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자원과 인프라 활용을 통해 제주의 민속이나 생태자원과 결합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강사만이 아니라 기획 인력도 함께 성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 문화복지의 확대

문화는 경제적·사회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거나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이 있는 애호가만의 것이 아니다. 문화는 사회의 보편적인 구성원들이 삶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에 비해 그 기회가 제한되거나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서 더욱 그러하다. 대표적인 대상인 장애인, 재소자, 군인, 다문화가정, 노인,



▲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 늘푸른요양원

저소득층 아동 등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다문화 가정이나 고령 인구, 또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문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 제주 소년원의 경우 그 시설과 프로그램의 우수성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 등 제주의 일반 주민만이 아니라 소외되기 쉬운 대상에 대한 배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복지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본다.

● 지역축제의 전문성 강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가 최근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십억의 예산이 드는 대규모 관광축제나 전문적인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축제도 있지만 점차 소규모 마을 단위의 농촌 축제들도 늘어나고 있다. 마을의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즐기고, 도농(都農) 간 교류와 소통의 계기도 되며, 장기적으로 마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열리는 것이 마을의 축제이다. 그런 면에서 지역의 마을축제에 문화가 효과적으로 접목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의 축제들도 그 고유한 문화를 반영하면서 국제적인 수준의 축제 운영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방문객들의 축제 참여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주민 중심의 축제와 전문가에 의한 축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지역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 제주들불축제

● 지역관광과의 협업

관광의 경우 과거 집단 여행이나 시설 관람 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유형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관광 프로그램에 생태적 환경과 함께 문화적인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체류의 시간이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점차 증가하



▲ 제주신영영화박물관

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젊은 층들에게는 문화적인 요소는 절대적인 흡인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계는 이제 관광의 영역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때로는 관광의 도구로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는 경관이나 풍광 또는 명승지 중심의 대중관광의 시대에서 뚜렷한 테마를 가진 목적방문이 늘어나는 만큼 제주도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용태세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문화는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기도 하지만 관광분야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호혜적인 도구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나 요식업 등의 문화 프로그램과 디자인 등에 지역 예술가가 적극적으로 협업의 플랫폼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민속의 보존과 계승

지역마다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문화, 문화재 그리고 유무형의 문화자원들을 주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국가 단위의 문화재들은 정부의 몫이라 하지만 지역 단위의 활동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 속에 계승되어 내려오는 민요나 농악, 연희 등의 보존과 콘텐츠화는 지역의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쉽게 끊어지게 되는 지역의 전통과 예술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제주도는 그 어느 지역에서든 찾아보기 어려운 고유하고 독창적인 지역문화의 보고이므로 이를 잘 살려 보존의 대상으로서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넘어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계승 방식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민속이나 전통이 살아있는 유산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이 또한 전문 기획자나 전승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 해녀노래보존회 공연사진

● 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의 발굴과 콘텐츠로의 개발 그리고 이의 활용은 자칫 일상에 묻혀 버리기 쉬운 자원들의 가치와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게 한다. 특히 음식이나 주거방식, 생활양식, 디자인, 주민들의 정서적 기질 등 우리 주위의 모든 분야가 문화의 영역이자 자원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과 콘텐츠 제작 및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살아있는 문화요소



▲ 놀이때한라산 공연사진

의 활용은 주민 자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의 고취 그리고 대외교류의 일차적인 도구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회복의 매개가 되는 것이 또한 문화이다. 지역 곳곳에 있는 생활친화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이나 지원 위주의 프로그램을 탈피하여 자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촉진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제주의 경

우 외지인과 원주민간의 융화와 협업을 생활문화 중심으로 장려할 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월평리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나 가시리의 종합개발사업에의 문화 활용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다 지역의 문화인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경제에 이바지

문화를 활용한 방법은 지역에서의 영농이나 가공 또는 주민 경제 활동상의 매출증대나 전통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각종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는 문화에 대한 호의와 신뢰를 가지게 되며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서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디자인, 마케팅, 홍보, 도농교류 등을 통해 적용될 수 있으며 축제나 관광 등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도 있다. 특히 지역의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높은 품질과 문화적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특히 제주의 경우 농산어촌과 도시의 특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산업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도록 문화마케팅과 문화경영의 중요성이 크다. 제주 역시 문화와 경제가 서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의 문화인력은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른바 브릿저(BRIDGER)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과 협업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제주솔로리카페

● 지역 기여 시스템과 환경 구축 필요

문화는 이제 지역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에서 예술의 창작과 주민의 향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의 수단, 그리고 나아가 지역개발과 산업 그리고 국제교류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문화는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판촉과 같지는 않으나, 한번 인식에 자리 잡으면 비교적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다국적문화공연단체 '살거스(Salgoce)'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적 자원의 조사와 발굴, 거점 공간의 확보와 조성, 다양한 콘텐츠 기획, 홍보와 마케팅을 통한 활성화, 유지와 지속가능을 위한 운영체계 가동, 축적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교육, 컨설팅 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운영체계와 적극적인 교류협력 등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인식되어 전방위적인 문화의 활용 방안이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하드웨어의 조성과 소프트웨어의 장착 그리고 이를 운영할 휴먼웨어의 구축 등 거시적이며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과 사업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행정과 전문가 및 주민 간의 협업이 절대적이다.



▲ 살거스(Salgoce) 공연사진

지역의 다양한 관계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중시하며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려는 체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더욱 존중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레지던스나 창작, 그리고 마케팅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의 취약성을 공공의 구매나 지역에서의 활용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젊은 예술가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거나 외부의 예술가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정주성을 높여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의 예술가들 또한 단지 고전적인 의미의 창작활동 외에도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의 공급, 지역 경제활동의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역의 예술가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제주는 아름다운 풍광과 지역의 이미지를 잘 살리면서 예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나 공공미술의 영역에 지역의 건축가나 디자이너 또는 미술가들의 역할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예술인촌의 조성이나 레지던스 기타 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거나 이러한 투자와 지원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계기와 촉매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는 이주 예술가들의 구성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만큼 이들이 효과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풍부한 생태자원과 고유한 민속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이 그 본원적 가치를 발휘하는 영역을 넘어 실로 무궁무진한 영역에서 도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과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예술가 그리고 행정의 호의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재단 그리고 예술가와 문화단체 간 협업이 무척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의 문화를 책임질 전문 인력의 양성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문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할 전문가들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 분야의 특성상 전문가와 주민 그리고 행정이 함께 해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매개자로서의 지역문화기획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등학생에서부터 그 적성과 관심을 파악하여 진로를 지도하고 지역에 있는 잠재적 인력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귀촌자나 이주자들의 전문성이 지역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너거 아버지 뭐 하시노?”

+ 글·사진 이창원 (인디053 대표)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의사라는 말을 하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는 것처럼 문화기획자도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청년문화기획자가 행복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 중 / 2014. 3. 27 —

“직업이 뭐예요?”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참 난감하다. 살다보면 종종 난감한 순간이 생기지만 문화기획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때 참 난감해진다. 평소 일도 많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딱히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누군가에게 정성들여 실컷 설명해봐야 대부분의 상대방은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럴 때는 의사나 공무원, 회사원 등





▲ 인디053 거리공연

누구나 알 수 있는 직업이 부럽기도 하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올해로 문화기획자 생활 10년차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신다.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문화기획자란 직업에 대해 설명하면 심부름센터나 거간꾼 정도로 여기신다. 그저 가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면 ‘아, 우리 아들이 저런 걸 하는군’ 하며 어림짐작할 뿐이다.

더 심각한 적도 있었다. 몇 년 전, 결혼승낙을 받겠다며 처가를 처음 찾아가던 날이었다. 나름 각오를 하고 갔음에도 장인 어른이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하나?”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난처함을 잊을 수 없다. 이제껏 내가 나왔던 보도자료들을 통틀어 브리핑을 해야 할 정도였다.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장인어른은 날 보면 “그래, 자네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라고 물으신다.

이렇듯 문화기획자라는 직업으로 살면서 직업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놓고 먹는 사람인가? 아니다.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문화기획자들은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을 한다. 일이 넘친다. 정말이다. 내 주위의 한 문화기획자는 하루가 36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문화예술현장에서 직접적인 창작활동 이외의 다양한 모든 일들은 모두 기획자의 몫이다. 심지어 업무가 변화무쌍하다. 아침에 해야 할 일과 저녁에 해야 할 일이 달라지는 경우가 99%다. 이것저것 다 해야 하고 심지어 잘해야 살아남는다. 더군다나 누가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야 할 때가 훨씬 많다.

이 글에서는 그냥 ‘문화기획자’란 단어로 ‘통’치기로 했지만 우리를 부르는 말들도 다양각색이다. 예술경영자, 매개자, 플래너, 제작자, 매니저, 프로듀서, 프로모터, 마케터, 프로그래머, 코디네이터, 감독, 프레젠테이션 등등 문화기획자는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무릇 간판 자주 바뀌어서 잘 되는 영업집 없듯이 이것저것 이름 붙인다고 일이 잘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어정쩡함 때문에 어디 사기꾼이나 업자로 취급받기라도 하면 속이 터져도 한참 터진다.

문화기획자는 직업이 될 수 있는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2012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작활동에 따른 월평균 수입은 20만원 이하가 12.3%, 21만~50만원 12.9%, 51만~100만 원 15.1%, 101만~200만 원 17%, 201만 원 이상 16.7%로 나타났다. 월평균 고정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문화예술인이 66.5%에 달하는 셈이다. '월평균 고정수입이 아예 없다'고 응답한 문화예술인도 26%에 달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몇 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창작활동에 따른 고정수입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실로 예술가라는 것을 직업이라 할 수도 없다.

현실이 이러하니 문화예술인들은 자신의 직업과 생업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과 '먹고 살기위해' 하는 일은 분리된다. 문제는 이 둘을 웬만해서는 함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둘을 통합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생활에 익숙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익숙함은 결국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만든다. 집중력이 떨어진 채로 만들어 내는 작품 혹은 사업들은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문화기획자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 일은 많이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 경제적으로는 더욱 힘들다. 대개의 경우 사회적 및 제도적으로 역할을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전문적 혹은 일회성 프로젝트와 같은 소모적인 기능으로 취급받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획비용 뿐만 아니라 특히 고용, 인건비 등에서 가장 열악한 여건에 있음에도 사회적인 인정 또한 되지 않았던 분야가 문화기획이다.

이렇듯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생업으로 삼기 힘들다. 문화예술이 생업이 못되다 보니, 문화예술인 스스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자세, 비전 등이 제대로 생길리가 만무하다. 직업과 생업의 철저한 분리, 이것은 대부분의 예술인, 문화기획자들의 어려움이다.

직업에 대한 현실이 이러하니 직장에 대한 개념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 문화예술단체들이 일반적인 직장의 기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다보니 문화예술단체 역시 직장으로서의 역할, 자세, 비전 등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 대부분의 예술단체의 경우 단체목적사업, 즉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의 비중을 전체사업 중에 50%라도 넘기면 성공적이다. 문화예술단체 대부분이 단체의 생존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하기 마련이다.

문화예술계에 현장은 있어도 직장은 없다. 생업을 책임져주지 않는 예술단체가 직장으로서 기능을 하기란 쉽지 않다. 하나의 산업(혹은 생업생태계)이 원활하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직장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관계망으로 얽혀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에는 직장의 개념이 희박하다보니 좀처럼 산업의 형태로 들어서기가 쉽지 않다. 무언가 계속 어긋나고 맞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_ 대구



▲ 인디053 현수막



▲ 청년학교 웹포스터

지역이 희망이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문화기획자는 한마디로 예술과 관객(소비자)의 만남을 효과적으로 주선하는 사람이었다. 공연, 전시, 축제, 영화, 음반 분야 등에서 예술 또는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서 문화적인 촉매활동을 통해 그 둘을 어떻게 만나게 하는가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이제껏 해왔던 방식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관객들의 눈높이와 사회의 문화적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새롭고 다양한 시도와 방법을 통해 더욱 더 많은 활동의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지역과 생활문화가 중요한 활동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고 그 것을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문화기획자는 대중과 문화예술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화 매개자로서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의 만남, 문화산업, 문화예술교육 등에서 접근과 연계를 하는 매개자로서 문화매개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활동영역 부문도 다양해지고 광범위지고 있는데 단순히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는 것은 물론 공간기획자, 마케팅기획자, 도시기획자, 공동체기획자 등 창의적인 문화프로그램을 기획·설계·분석·평가하는 것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공유 기업, 커뮤니티 기획과 같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공성의 영역도 문화기획자들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 지역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으며 생활 속에서 일반 대중, 주민들과 함께할 때 그 빛을 발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의 활동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 작년에 개정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문화인력'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인력 양성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문학진흥법」 등의 법률에 기반한 사업들도 넓은 의미에서 지역사회에서 문화기획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 이런 정책적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문화정책은 '예술(지원) 영역에서 공간과 생활 영역'으로, '전문가 영역에서 교육과 체험, 보편적 서비스 영역'으로, '일방적 후원 영역에서 마케팅 영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특히 개발이 아닌 인간 중심의 지역발전, 도시재생 등의 어젠다를 만들어낼 때 문화예술은 빠질 수 없는 영역이 되었으며, 이는 모두 지역 내 문화기획자들의 역할로 부상될 것이다.

앞으로 문화기획자는 문화매개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 대중이 문화예술과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정책적으로는 공공문화정책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급자와 수요자, 중앙과 지역, 전문가와 일반인, 콘텐츠와 소비자 사이에서 문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 대중들의 생활에 밀착할 때 빛을 발할 것이다.

“노력하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공간과 생활 영역의 창조’, ‘보편적 시민을 위한 다양한 예술 서비스의 제공’, ‘마케팅 활동을 통한 예술과 지역, 사회, 집단의 부가가치 강화’ 등이 매우 중시되는 사회로 변모할 것이고 서서히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예술가보다 기획력과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갖춘 집단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문화기획자 집단들은 계획과 실천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코디네이팅과 네트워킹의 허브 역할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기획자들의 역할과 활동영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이런 사회 변화에 맞춰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예술단체와 문화기획자들도 단순히 자신들의 작품 활동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 다양한 창작자, 소비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펼쳐지는 장을 통해서 다양한 잠재인력들을 만나고 길러낼 수 있는 실력들을 스스로가 쌓아야 한다. 현재 인디053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함께 ‘청년학교 in 대구’란 지역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문화매개,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디자인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이 지역의 인력으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목표이다. 역시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연대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이중교배를 통해 활동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문화기획자?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만드는 사람

아직까지 문화기획자가 지역사회의 당당한 한 축으로서 또 직업으로서 자리 잡기에는 부족한 게 많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앞으로는 문화기획자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 즉,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문화기획자이기 때문이다. 좋은 생태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저마다의 역할을 가지고 모두 생존한다. 지역사회에서 문화기획자는 이런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의 지역발전은 이런 좋은 생태계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 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글을 쓰다 보니 문득 얼마 전 태어난 딸이 생각난다. 아직 100일이 안된 첫 아이인데, 딸아이가 커서 학교 선생님한테 “너 거 아버지 뭐하시노?”라는 질문 받으면 딸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그냥 “동네문화기획잔데예.” 라고 이야기해도 선생님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한다. 그리고 그 세상은 어느새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듯하다. 

급변하고 있는 **제주 문화예술계**, **문화예술인**의 **역할**은?

+ 글 **이장희** ((사)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장)



▲ 문화공간 '양' 전시공간 _ 최호식 제공

»»»»»»»»»» **최근 제주 문화예술계 변화**

최근 5년 사이에 제주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제주 이주는 하나의 트렌드가 될 정도로 많은 예술인들이 제주에 정착하고 있고, 그들의 존재감과 활동상이 제주문화의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이주 및 재입 증가는 제주 문화예술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도(道) 차원이나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보면, 문화예술인이 증가하는 현상에 힘입어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본적인 골조로 하고 있다. 과거 제주도는 '향토문화진흥'이라는 기본으로 하여 문화예술정책을 펼쳐왔으나 이번 민선 6기에 들어서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그 목표를 정하고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道)는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 연계방안 등을 위한 '문화예술의 섬 TF'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인력 POOL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문화마을'로, 서귀포시에서도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이와 관련한 문화예술 특구라든가 문화예술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지역의 유희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국내외 유명예술인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창작문화촌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에 오픈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의 거주환경을 기반으로 제주도와 전국, 나아가 동아시아 정보기술(IT)기업 등 문화·소프트웨어 분야 혁신 주체 간 연결과 융합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문화·소프트웨어 분야 창작, 창업가들에게 체류지원과 네트워킹, 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모두, 제주가 예술인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정책들로 이주 예술인들을 제주 문화예술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문화공간 '양' 인문학 강좌



》》》》》》》》》》 창작 및 예술공간 급증과 그 역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 문화예술계는 작가들이 생산자의 역할과 함께 매개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과 유통까지 모두 스스로 해왔을 만큼 문화예술계의 규모가 작고 열악했다. 창작 및 예술공간만 해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었고, 새로 공간이 생겨도 그렇게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지난 5년 동안 이주문화예술인들의 급증과 더불어 정부지원에 힘입어, 현재 제주지역에 조성된 창작 및 예술공간이 25여 곳이 넘는 상황이고, 그 위치도 시내를 물론 제주 동서남북 전 지역에 퍼져 있다. 이렇게 공간이 늘어난 데에는 재단의 '빈집프로젝트' 지원사업과 제주시가 추진한 '빈집포입주' 지원사업 등이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대부분 제조산업이 주를 이루던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선정 단체들도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2014년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선정된 단체 10 곳 가운데 5곳이 문화예술 관련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이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도(道) 정책도 창작공간을 더 확충할 계획이어서 제주도에 창작 및 예술공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5년 동안 새롭게 조성된 25여 개가 넘는 창작 및 예술공간들은 제주 예술계의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통해서 제주 문화예술계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중간 매개자인 기획인력 확대 등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창작 및 예술공간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제주의 창조적 문화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술인 간의 소통

이주 문화예술인 증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제주문화예술계의 성장을 위한 발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역할을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주예술인과 제주예술인 간의 소통이다.

제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제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주작가'와 최근 타 지역에서 제주로 유입되고 있는 '이주작가'로 나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작가군의 상호교류는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주 작가들이 운영하는 창작공간에서 활동하거나 지원하는 작가들을 보면, 이주 작가들의 지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 작가가 운영하는 창작공간도 마찬가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작 및 예술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획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주작가와 이주작가들이 교류를 확대하면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획들이 이어진다면 어디에서도 없었던 새로운 창조적인 형태의 문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활발한 상호교류 속에서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만나 창조적인 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행정과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인들 간의 연대

이와 함께 도(道)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정책에서도 행정과 예술인 간의 소통 또한 풀어야 할 큰 과제이다. '문화예술의 섬'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제주작가와 이주작가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고, 주체자로서 역할을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관 주도 하에 그림을 그리고, 제주 문화예술인과 도민이 그저 그것을 따라가는 형태가 된다면 제주도는 박제화된 '문화예술의 섬'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창의성이 피어나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함께 이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제주 전역에 있는 창작 및 예술공간이 각자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연대를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의 공유와 소통의 역할을 한다면, 행정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를 지난 5년 동안 제주문화예술계는 경험했고 그 변화는 현재도 진행중이다. 그래서 예측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인 뿐 아니라 행정이나 도민 모두 제주 문화예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은 일치한다. 지금이야말로 문화예술인 간의 '소통'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예술인 간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창작의 장을 확장해나가고, 이와 더불어 제주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주체자로서 함께 연대하여 행정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창조적인 형태의 문화가 제주에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 반짝반짝지구상회 - 바다유리 조형전시 및 작가와의 대화

『All That Jeju』 제주출신 보컬리스트 루아 (Lua)

그녀, 루아 Lua가 부르는 제주의 목소리

+ 글·사진 한형진 (제주의소리 기자)



▲ 보컬리스트 '루아(Lua)'

지난 4월 21일, 세상에 나온 앨범 한 장이 조용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All That Jeju』 (올 댓 제주), 제주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야심찬 제목을 달고 나온 이 앨범은 재즈와 제주의 감성을 결합시킨 11개의 곡으로 채워져 있다.

재즈, 분명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장르다. 인터넷 음원 홈페이지와 TV 순위 프로그램만으로 음악을 접한다면 재즈는 더욱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음악 재즈와 작은 섬 제주의 만남, 올 댓 제주가 주목받은 이유는 태생부터 비주류에 가까운 두 가지 존재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감성에 있다.

재즈 인 제주 (Zazz in Jeju)

수록곡 제목만 봐도 제주다운 느낌이 물씬 풍긴다. 「애월낙조」, 「하도리 가는 길」, 「평대의 봄」, 「푸른밤 푸른별」, 「바사주」 등 고유 지명과 제주 사투리가 한 눈에 들어온다. 단지 제목만으로 올 댓 제주가 제주다운 것이 아니다. 앨범 제작부터 작곡을 총괄한 재즈피아니스트 임인건은 기차표가 1,000원이던 시절부터 제주의 매력에 푹 빠져 수시로 제주를 오고 갔다. 지금은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겨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제주 출신으로 국내 여성 보컬리스트에서 이름이 알려진 강아슬과 이제는 제주 뮤지션으로 소개해도 어색하지 않은 장필순도 목소리를 보탰다.

“어느 순간부터 제주라는 지역명은 문화 관련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제주라는 이름 자체가 이상향이 돼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물음이 생긴다. 제주를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많은 음악에, 제주라는 공간의 삶, 혹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제주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 재즈 피아니스트 임인건의 『All That Jeju』는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다채로운 답변이다.”



▲ 카페 '닐모리동동' 공연

어느 음악평론가가 남긴 앨범 소개 글 내용처럼 올 댓 제주는 제주를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개인의 솔직한 감정에 기대어 제주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양한 장르의 재즈로 녹여냈다.

이런 가운데 올 댓 제주에서 특별히 주목을 끈 곡이 있다. 걸쭉한 제주어 가사를 청아한 목소리로 부른 「봐사주」다.

*“너른 바당 벗 삼은 섬 물 때 물질해사주.
망사리, 소살, 테악 들렁으네 물질가사주.
호곰 인척엔 뱃치 과랑과랑 난게만.
호곰 날 우침써 예헤에 잘 콰니어 오.”
(넓은 바다 친구 삼은 섬 물 때 물질해야지.
망사리, 소살, 테악 들고서 물질가야지.
조금 전엔 햇별이 반짝반짝 났는데.
조금 날이 우중충 하네 예헤에 잘 났어 오.)*

젊은 여성의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제주사람들도 한 번은 가우뚱하게 만드는 제주어 가사에 브라스 편곡까지 더해져 듣는 이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든다. 곡 전반에 흐르는 흥겨운 리듬이 인상적인 「봐사주」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 국내 아이돌그룹 《샤이니(SHINee)》의 멤버 종현이 주목하면서 더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며칠째 이곡을 계속 듣고 있다. 가사가 제주방언이었는데 제주도의 판타지를 더 키워줬다. 발음을 너무 잘 표현한 루아라

는 가수도 너무 궁금해졌다. 물음표 투성이인 곡, 매력적이다.”

종현이 지난 4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봐사주」 청취 후기는 3645번이나 리트윗(Retweet, 전달기능)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에도 5월 2주차 추천곡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MBC FM4U 프로그램 ‘푸른 밤, 종현입니다’를 제작하는 용승우 PD는 「봐사주」에 대해 “재즈와 제주 방언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구나.”라는 추천곡 선정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봐사주」로 제주어에 대한 매력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준 주인공은 제주출신 보컬리스트 루아(Lua), 김성림(28, 본명)이다. 그녀는 「봐사주」뿐만 아니라 「바람의 노래」, 「Hi Jeju」, 「사랑은 풍경」 등 올 댓 제주에서 4곡을 만든 작사가로도 등록돼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올 댓 제주 내 모든 곡의 가이드 녹음(미리 곡을 불러보는 과정)을 루아가 담당했고, 최초 제작 과정에서 루아가 전 곡을 소화하기로 구상돼 있을 만큼 올 댓 제주에서 루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앨범 제작과 모든 작곡을 소화한 임인건 씨는 “루아는 굉장히 맑고 순수한 소리가 있다. 서울에서도 맑고 고운 소리를 잘 내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연습으로 만들어내는 느낌이 경우가 있는데 루아는 그냥 소리 자체가 티 없는 목소리다. 거기에 약간 우수가 섞여있어 더욱 매력적인 느낌을 준다”고 그녀의 음색이 가진 매력을 높이 샀다.



▲ 하도리 카페 공연

Lua만의 「봐사주」

앨범 발매 이후 약 3개월 지날 때 즈음 만난 루아는 「봐사주」로 인해 받은 관심과 사랑이 자신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처음 가이드 녹음을 하고 제 목소리로 전부 녹음할 계획이었지만, 생각해 보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가수 분들이 작업에 참여하면 앨범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완성되고 나서 곡을 들어보니 모두 개성 있는 색깔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임인건 씨는 “올 댓 제주라는 제목만큼 다양한 뮤지션이 다양한 제주의 모습을 표현하자는 의견과 앨범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해 애초 루아 목소리만 가져갈 계획을 바꾸게 됐다. 그렇지만 이 앨범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인 「봐사주」는 루아가 꼭 불러야 했다”고 설명했다.

BMK, 장필순, 요조 등 익히 알려진 유명 뮤지션들이 올 댓 제주에 참여했지만, 오히려 앨범을 가장 많이 알린 것은 결국 루아가 부른 「봐사주」라는 점은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선한 미소와 가녀린 자태가 인상적인 루아는 제주시 이도지구 인근에서 나고 자랐다. 한때 승무원 취업을 준비하기도 했고, 어느 제주도 청년들처럼 서울로 상경해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인상적인 점은 음악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음악을 즐겨 듣고 부르는 것 역시 좋아해 막연하게 ‘가수가 되면 좋겠다’고 꿈

꿨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대에 서는 일까지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음악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데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트럼펫 연주가인 형부 김동하 씨의 영향이 컸다. 김 씨는 ‘TST’라는 연주 세션팀을 꾸리며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뮤지션들의 녹음 작업과 연주를 담당하는 실력자로 평가받는다. 서울에서 언니, 형부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공연을 접했고, 그런 경험들은 차곡차곡 음악의 꿈을 키워나가는 자양분이 됐다.

“R&B나 소울풍 음악을 좋아해요. 박효신, 재즈민 설리번(Jazmine Marie Sullivan), 에리카 바두(Erykah Badu)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어떨 때는 펑크 음악도 듣고, 어떤 곡에 끌리면 계속 듣는 스타일이예요. 이런 저런 장르 구분 없이 다양하게 들어요. 형부가 그쪽 계통에 종사하시니 운이 좋게도 서울에 있을 때 콘서트 공연을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팬으로서 ‘잘 부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대에 오르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을 일컬어 ‘삼포·사포’ 세대라고 부르는 서글픈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이 시기에 그녀 역시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 좋아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적지 않게 고민도 했지만 그녀를 사로잡은 건, 늘 그녀 곁에 있었지만 존재감을 몰랐던 ‘음악’이었다.

지난 2013년 임인건 씨가 미애랑소극장에서 개최한 공연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루아의 데뷔 무대다.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무리 지은 뒤, 그해 겨울부터 시작된 올 댓 제주 앨범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당시 미애랑소극장 공연을 두고 임인건 씨는 “루아가 (노래를)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한 번 권해봤는데,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잘하고 당황하지도 않아서 깜짝 놀랐다”고 기억했다.

그 공연에 대해 루아는 “공연 합주를 구경 갔는데 선생님께서 ‘보컬 자리가 있으니 한 번 불러볼래?’라고 추천하신 것이 계기였어요. 그때 처음 부른 곡이 올 댓 제주 2번 트랙에 있는 「푸른자켓」이었는데, 처음 부를 때 멜로디가 어려워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웃음). 저에게는 처음 무대였잖아

요? 공연 내내 생각 없이 막 하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엄청 긴장도 많이 했지만 다행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라고 기억했다.

고향 제주였기에, 더 뜻 깊은 인연

우연처럼 다가온 무대를 놓치지 않고 이후 앨범 작업까지 참여하게 되는, 짧지만 나름 숨 가쁘게 달려온 과정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

“고향에 내려와서 공연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는 상황은 제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인연이 닿아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예민하면서 딱딱 정해 놓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에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인생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 흐르듯이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죠.”

신기하면서 놀라운 시간.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점점 다가오는 현실이 느껴지는 28살 루아에게 제주에서의 시간은 신기하면서 놀랍다.

「봐사주」를 들어봤다면 느낄 수 있지만 루아의 가장 큰 장점은 맑은 음색이다. 전문적인 훈련으로 탄생한 맑음과는 또 다른 느낌을 그녀는 가지고 있다.

루아의 가치를 일찌감치 발견한 임인건 씨는 “음악적 재능, 미모, 음악을 사랑하는 애정까지...루아는 뮤지션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대부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에서는 흔치 않은 음악 인재”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아직 전업 음악인과 아마추어 사이에 놓여있는 그녀는 스스로의 실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환하게 웃어만 보였다.

“앨범 연주자 분들이 아무래도 베테랑이라 항상 작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임인건 선생님께서 저의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셔서 큰 힘이 됐죠. 스스로 아직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그녀가 부른 「봐사주」는 루아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분위기를 몰아 앨범 발매 기념 공연까지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연은 결국 무산됐다. 큰 관심이 쏠린 절호의 기회를 안타깝게 놓쳐버린 셈이지만 루아는 덤덤한 듯 ‘조급해 하지 않겠

다’고 했다.

「봐사주」를 들으니 여름에 제주도를 가고 싶어졌다’는 트위터 글을 보며 ‘뿌듯했다’는 신인다운 모습도 보여주는 그녀. 자신을 남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싶은 욕망도 크겠지만, 공예가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은 고운 찰흙처럼 그녀는 음악의 꿈을 간직한 채 멋진 도자기로 빚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30년 넘게 재즈 한 길만 걸어온 임인건 씨는 “루아는 설문대할망의 젊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늙지 않는 여신의 청아하고 티 없는 제주스러운 목소리를 가졌다. 루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좋은 뮤지션들 모두를 설문대할망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서울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역에서 발굴한 뮤지션이 더 성장하려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야 한다. 음악인에게 공연과 무대는 자기를 도약시키는 에너지다. 일각에서는 제주에 정착하러 오는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문화예술 분야는 오히려 ‘육지’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제주사회에서 제주 문화예술 인재를 더 알아봐주고 품어주는 토양이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동네 심방 안 알아준다’는 제주 속담은 이미 도민만이 느끼는 분위기가 아닌 셈이다.

이쯤에서 루아에게 꿈을 물어본다. 척박한 문화예술의 땅, 고향 제주에서 자신이란 씨앗을 심으려는 그녀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김성림으로서 사는 삶이 아닌 루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음악적인 캐릭터나 방향이 명확하게 잡지 않았기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고민이야 늘 있겠지만 즐겁게 살고 싶어요. 음악적인 성취감을 느끼면서 제 주변도 함께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 미에랑소극장 공연

우도와 나의 유년시절

+ 글 **고충석**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 사진 **양모란** (재단 기획팀)

지/난날에 대한 회상은 기쁜 일이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하다. 영국의 저명한 계관시인 테니슨은 「가을」이라는 시에서 가을 들판을 바라다보며 가버린 날들을 추억할 때에 그 어떤 거룩한 절망의 심연에서 나온 부질없는 눈물이 가슴에 치밀어 눈에 고인다고 노래했다. 나는 우도를 생각할 때 이런 기분에 휩싸인다. 우도는 내가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내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나의 고향이다.

제주도의 동쪽 끝에 접한 섬으로 섬의 형상이 물소가 머리를 내밀고 누워 있다고 하여 소섬 또는 이를 한자화 하여 우도라고 불린다. 요즘은 대한민국 10대 관광지 중의 하나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1년에 13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섬 속의 작은 섬을 찾다니 놀라운 일이다. 우도를 방문하려는 목적



▲ 우도 톨까니(톨칸이)



▲ 서빈백사해수욕장 (산호사해변)

으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 관광객뿐 아니라 우도에 정착하려는 인구까지 늘고 있다하니 우도가 고향인 나로서는 실로 감회가 새로운 일이다.

나는 산호사해수욕장이 있는 천진동 마을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다. 홍조단괴라는 하얀 모래가 쌓여 눈이 부시다 못해 푸른빛을 내는 아름다운 풍경의 산호사 해수욕장은 우리 집 앞마당처럼 가깝다. 동양에서는 유일하며 우도 팔경중 하나로 천연기념물 438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향에 갈 때면 나는 이곳을 자주 찾는다. 그곳에서 운동회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하겠다고 일주일 전부터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던 키 작은 한 소년을 만나곤 한다. 바지 끝을 끈으로 단단히 묶고 모래를 허리부터 발목까지 가득 채우고 달리기 연습을 했지만 성적은 늘 3등에 그쳤던 왕고집 우도 소년, 나는 그를 떠올리며 혼자 행복한 웃음을 짓곤 한다. 그렇게 우도는 낡은 서랍 속의 사진처럼 나의 유년시절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내가 어릴 적 우도는 정말 못살았다. 우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가난을 면키 어려운 시절이었

다. 그나마 우도는 '반농반어(半農半漁)' 형태를 띤 작은 섬마을로 풍부한 어장을 갖고 있었다. 요새는 우도땅콩이 유명하지만 내가 어릴 적에는 고구마를 많이 재배했다. 고구마를 말려서 주식으로도 사용하고 전분용으로 팔기도 했다. 우도의 우무가사리와 참미역, 납미역은 전국 최고의 특산품이었다. 가끔 술집의 술안주로 미역귀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우도 산(産)이 아닌가 생각하곤 한다. 이것들은 해녀들의 주 수입원이었다.

그런 이유로 가까운 구좌읍보다는 살림 형편이 나았지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은 형편없었다. 우선 물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상수도가 없던 시절 다른 지역의 해안가 마을에서는 바닷가에서 나오는 용출수를 길어다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도에서는 빗물, 즉 봉천수(奉天水)를 받아 식수로 이용하였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가뒀는 저수지 형태의 우리 동네 우물 이름은 양방통이었다. 그나마 이 물마저도 가뭄이 들면 옆 동네 사람들이 훔쳐 갈까봐 밤마다 마을사람들이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야 했다. 한마디로 물과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가뭄이 심해지면 그 양



▲ 각시물터

도 적을뿐더러 오염의 정도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였다. 뱀, 개구리가 사는 것도 모자라 때론 죽어 있기도 했으니 풍토병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었다. 우도 사람들은 한집 건너 한명씩 간장병을 앓았다. 나의 아버지도, 사촌형도 간장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였다. 의료보험제도가 구축되지 않았고 병원마저 없었던 우도에서 간장병이 걸리면 제주시로 나와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발이나 집을 한 채 팔아야 고칠 수 있는 중병이었다. 이 모두가 식수가 원인이었다. 용출수가 많이 나오는 종달리에서 물을 수송하기도 했지만 식수난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바다 건너 종달리는 외가가 있는 마을로 우도에서 잘 자라지 않은 수박과 참외를 재배했다. 내가 열 살 무렵 외가에서 수박과 참외를 얻어 배에 싣고 오다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는 위기를 맞아 목숨을 잃을 뻔 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어른이 된 지금도 배타는 것을 무서워한다.

우도의 이러한 물 사정과 관련하여 각시물에 관한 전설 아닌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마을사람들이 하도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자 지관을 불러 물을

니 “여자 없이 어떻게 자식(물)을 낳느냐? 각시를 데려와라. 그것도 서쪽 어두운 곳의 색시를 데려와라.”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수소문 끝에 구좌읍 종달리 ‘서느렁이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새색시 모셔오듯 항아리에 담아왔다. 이렇게 운반해온 생수를 우물에 쏟아 붓자 신기하게도 물이 솟구쳤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최근 이곳에 각시물 휴양지 조성 사업으로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다. 우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지나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크다.

우리 동네 중앙에는 소규모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팡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저녁을 먹고 나면 으레 하나 둘씩 광고팡에 모였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별빛이 깊어질 때쯤 집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여름밤 어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곤 하였다. 방학 때 우도 집에 갔다가 제주시로 나올 땐 아버지 어머니가 이곳까지 배웅을 나와 손을 흔들어 주던 모습이 아련하다.

전도연 주연의 「인어공주」의 촬영지로 유명한 톨까니(톨칸이)는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소 여물통에 해당하는 곳이다. 초등학교 때에는 이곳으로 소풍을 자주 갔고 보물찾기를 하며 놀던 곳이다. 최근에는 한 반도를 닮은 여기가 발견됐다 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섬머리에 있는 우도 등대는 우리나라 최초로 등대를 테마로 한 등대공원을 조성,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06년에 설치된 우도 등대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 일대에서 오늘날 볼 수 있는 소나무는 내가 초등학교 시절 고사리 손으로 산림녹화 운동에 참여해서 심은 나무들이다. 소나무를 심기 위해 동원되었던 어린 친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우도 등대를 지키는 등대장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그 딸은 제주시

에서 전학을 왔기에 나름 도회지 느낌을 풍겼다. 피부도 하얗고 세련미가 있고 얼굴도 예뻐다. 2년 정도 우도에 살다가 다시 제주시로 전학을 가버렸다. 그 후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을 읽으며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소녀를 그리워하였다. 지금 그 소녀는 어디서 늙어가고 있을까?

나는 남들과 달리 초등학교를 두 번이나 입학했다.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일곱 살 때였다. 남들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힘이 장사인데다 고집이 세서 친구들이 별명을 '팔갑선'이라고 불렀다.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 이유는 바로 '곤밥(쌀밥의 제주어)' 때문이었다. 그때만 해도 제주에서 곤밥은 부잣집에서도 먹기 힘든 귀한 음식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어려운 손님이 방문하면 가끔 보리와 쌀을 섞은 '반지기'를 대접할 형편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좁쌀, 보리쌀로 밥을 먹을 때니 쌀밥은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었다. 또 곤밥을 해먹을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네사람들 눈치를 살피느라 쌀밥을 자제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낼 때만은 쌀밥을 올렸다. 제주도는 제사가 끝난 뒤 '식개태물'이라고 해서 제사음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먹는 풍습이 있었다. 더욱이 내가 살았던 동네는 고씨 집성촌이라 제사 다음날 아침에 제사음식을 가가호호 돌리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럴 때면 제사상에 올랐던 곤밥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사뒷날은 평소에 먹지 못하던 곤밥을 맛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즐거움 또한 함께 사라졌다. 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제사음식을 돌리는 바람에 학교가 끝나고 혈레벌떡 달려와 봐야 곤밥은 구경조차 힘들었다. 나는 어린마음에 아버지께 "왜 내가 없을 때 곤밥을 가져오느냐"며 "차라리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달래기도 하시고 혼을 내기

도 해보셨지만 소용없었다. 그렇게 엄하셨던 아버지께서도 내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다. 결국 내 첫 번째 학교생활은 두 달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곤밥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며 떼를 썼다니 이제와 생각하면 어처구니없을 만큼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 곤밥은 내 또래들이 동경하던 그 어떤 상징이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나 피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음식 이상이었던 것이다.

우도에서는 보리를 재배했었다. 6월 보리를 바짝 말려 방앗간에서 보리를 타서 마른가루를 만든 것이 개역이다. 보리 미숫가루인 셈이다. 물에 타 먹기도 하고 밥에 넣어 비벼 먹기도 하였다. 들일이나 물일을 나가는데 휴대할 수도 있어 여름철 최고의 별미였다. '한 달에 개역 세 번 해먹으면 집안 다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 장마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가족끼리 모여 앉아 개역을 먹었던 풍경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음식으론 해삼미역채가 생각난다. 싱싱한 해삼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바다에서 갓 따온 미역과 오이를 채 썰어 넣어 만든 새콤하고 시원한 그 맛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또 전설의 물고기가 불리는 저립고기가 있었다. 저립은 갓





돔 혹은 재방어라고 하는데 그 크기가 2m가 넘었다. 우도에서도 귀한 고기여서 경제적 여유가 없이는 맛볼 수가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매년 저립고기를 한마리 통째로 사서 소고기처럼 찢어서 소금에 절여 국도 끓여주고 구워주기도 하셨다. 1982년 제주 관탈섬에서 한 마리 잡힌 이후 제주 바다에서는 모습을 감춘 저립고기는 상상 이상으로 맛이 있는 고기였다. 더욱이 해양 생태계 지형 변화로 앞으로도 저립고기를 맛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버지께서는 자리물회를 참 잘하셨다. 자리를 빙초산에 절이면 억센 뼈가 연해진다. 자리

를 손질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내가 힘들 때마다 부여잡고 일어설 힘이 되어 주었다. 여름철 자리물횃집에 가면 아버지의 자리물회가 생각나면서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회한에 젖곤 한다.

아버지는 초등학교생이던 자식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실 정도로 교육열이 매우 강하셨는데 공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정없이 매까지 들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나는 공부만 하느라 농촌에 살면서도 밭을 갈거나 잡초를 메어본 적도 없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공부가 우선이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 형제들 중 누구도 농사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큰 형님은 우리 집을 대표하여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산으로 유학을 갔다. 당시 백부와 외숙이 부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어린 나이에 자식을 외지로 보낸 것을 보면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의지는 정말로 남달리 독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큰형님은 사춘기를 방황하며 보냈고, 폐병까지 얻으면서 부산 유학에 실패하고 돌아왔다. 그 후로도 큰 형은 우도 생활에도 적응을 못했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모두 처분해 서울로 올라가 사업을 벌였지만 사업에도 실패하고 떠돌이 삶을 살다가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홀연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지나친 열의가 화를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 어린 나이에 외지에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했을 큰 형을 생각할 때마다 막내 동생으로서 고인에 대한 이해와 동정이 깊어진다. 둘째형과 누이동생도 제주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아버지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나도 우도 중학 1학년을 마치고 결국 제주시에 있는 오현중학교로 전학을 오고 말았다.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도 나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나는 그저 큰 물에 가서 살고 싶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와의 이별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었다. 그저 꿈에 그리던 제주시로 유학을 나온 사실에 기뻐했었다. 당시 제주시에서 우도 왕래하기는 요즘 서울 오가는 일보다 더 어려웠다. 통통배에 몸을 싣고 성산항으로 나와서 동남까지 걸어와야 제주시로 오는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아버지는 어린 나에게 우도에 자주 오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도엔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제주시로 나온 나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다. 학원에까지 다니며 공부에 열정을 쏟았다.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

아들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부음 소식이었다. 인생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때가 고등학교 2학년 4월이었다. 내게는 그야말로 잔인한 4월이었다.

내가 어릴 적 우도는 풍부한 어장 덕분에 밥이아 굶지 않았지만 곤밥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가난한 삶이었다. 그나마 우리 집 살림 형편이 좀 나은 편이었는데 그것은 순전히 어머니 덕분이었다. 어머니는 소위 ‘해상상인’이었다. 부산과 여수까지 우도의 전초와 미역을 싣고 가서 팔아 꽤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그만 발동선에 그 많은 미역과 전초를 싣고 먼 바다를 다녔으니 상당히 도전적인 분이셨다. 내 어머님 같이 위험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사는 분들을 ‘저승 돈 주워다가 이승에서 쓰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 목숨을 걸고 험한 바다를 건너 육지를 왕래했다는 뜻일 것이다. 어머니가 물건을 싣고 육지로 출항할 때 무사히 저 바다를 잘 건너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던 어린 나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추억 속을 헤엄친다. 어머니가 물에서 제주로 돌아오실 때에는 부산, 목포 정기여객선을 이용했다. 어머니는 배운 건 없었지만 거상다운 리더십과 카리스마, 친화력을 가진 여장부셨다.

그렇게 집안의 큰 기둥 역할을 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가세가 기울어 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정신적 몰락 또한 경제적 몰락의 속도를 앞질렀다. 당시 오현고에 다니던 나는 어머니의 사망 때마다 우도 집에 다녀왔다. 혼자 사는 아버지의 절망과 아무런 고생도 모르고 자란 중학생이던 누이동생의 비탄에 빠진 모습을 보고 제주시로 돌아 올 때는 나도 그만 바다에 폭 빠져 수장되어 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고교시절을 타는 목마름으로 끝없는 사막을 건너는 기분으로 보냈다.

아버지는 비교적 고지식한 분이셨다. 어머니와 달리 자식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다. 그 시대에 우편

을 통해 동아일보를 구독할 정도로 지식인의 풍모를 보이셨다. 아버지는 촌사람치고는 높은 식견을 가진 분이셨다. 꼼꼼하고 고지식한 성격에 술을 좋아하시고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 어머니가 장기간 출타 중에는 아버님이 집안일을 도맡으셨다. 그런 아버지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두루마기 없이 홀저고리로 바람 속을 걷는 형국의 삶을 많이 보이셨다. 그나마 나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아버지를 지키는 힘이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어찌어찌하여 서울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아버지는 하나씩 전답을 팔아갔다. 아버지는 적어도 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 하지만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엔 팔 전답마저 없어 학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나도 아버지도 비참했다. 그러던 중 여러 분의 도움으로 운 좋게 제주대학 교수로 부임하였고 온지 1년 만에 아버지는 폐암 판정을 받았다. 술을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내가 공부를 하는 동안엔 한 톨이라도 아껴서 학자금에 보태느라 술 한 병 제대로 사드시지 않고 잔술을 사드셨다. 이제는 이 아들이 마음껏





술을 사드릴 형편이 되었는데 폐암이라니…… 그때 나의 절망감을 어디에 비길 수 있을까? 나는 강의를 마치면 성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우도 항에서 배를 타고 출퇴근 하다시피 하며 아버지 병간호를 하였다. 암 말기의 영향으로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나의 손을 잡더니 내 손바닥에 “미안하다. 집안 잘 부탁한다.”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간 자식들이 하나같이 변변한 생업이나 직장을 잡지 못해 부유(浮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나 나라도 교수로 부임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셨는지 편안한 얼굴로 저 세상으로의 여행을 떠났다.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나에게 돈을 부치며 편지도 자주 쓰시곤 하셨다. 아버지와 주고받은 편지가 족히 백여 통은 될 것이다. 결혼하면서 무작위로 뽑은 10여 통의 편지를 제외하고 전부 불 태웠다. 아버지의 편지를 남긴 것은 나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조부가 얼마나 아비를 사랑했고 어떤 고민을 부자지간에 나눴는가를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훗날 나의 자식들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존경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서이다. 내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절망을 느낄 때도 있었고 희망을 품었던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켜켜이 묵혀둔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읽어보곤 한다. 지금도 아버님이 사셨던 신산한 삶을 생각하면 왈칵 눈물이 쏟아진다. 냉면을 시켜 먹다 냉면을 좋아하셨던 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어 젓가락을 내려놓고 벌겋게진 눈을 훔치는 횃수가 찾아진 걸 보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보다.

우도 우리 집과 집안으로 들어가는 골목을 함께 쓰는 형제 같은 이웃이 있었다. 그 이웃이 바로 김군봉 형이다. 그 분은 내가 우도중학교 1학년 때 새벽마다 우리 집으로 건너와서 영어를 가르쳐 주셨다. 그 형은 우도 천재로 불릴 만큼 두뇌가 명석했다. 일찍이 부산고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다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귀향하여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부친은 부산에서 상선인가 어선의 기관장이라서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살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 형의 인생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 시대는 누구나 거의 다 가난한 대학생들이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얻고 사회로 진출하는 선배들도 많았다. 그러나 군봉 형은 일찍 모친을 여의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정적이고 의지가 박약했다. 고난을 극복하지 못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일찍 결혼한 부인과도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없었고 힘겨워하던 그의 부인은 고향의 어느 갈대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 후 군봉 형은 재혼도 하고 상경해서 학업도 계속해보았지만 의지박약,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재혼한 부인에게도 버림받고 다시 우도에 들어와 쓸쓸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 박제된 수재로 살다가 간 것이다. 그렇다고 소설이나 시를

쓰는 문인도 아니라서 문학작품은 남기지 못했지만 박인환이나 김관식처럼 최후가 너무 비극적이다. 나는 모던니스트였던 박인환의 시도 좋아하지만 김관식의 시를 사랑한다. 서정주의 동서였던 김관식은 한 때는 최남선으로부터 신동으로 불렸고 장면 박사하고 국회의원 경쟁도 했던 객기가 대단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불행한 여생을 보내다 비참한 삶을 마감했다. 너무나 가난했던 김관식의 말년의 시를 읽으면 눈물이 난다.

병상록 (病床錄)

김 관 식

병명도 모르는 채 시름시름 앓으며
 몸져누운 지 이제 10년
 고속도로는 뚫려도 내가 살 길은 없는 것이냐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
 오장이 어디 한군데 성한 데 없이
 생물학 교실의 골격 표본처럼
 뼈만 앙상한 이 극한 상황에서
 어두운 밤 터널을 지내는
 디젤의 엔진 소리
 나는 또 숨이 가쁘다 열이 오른다
 기침이 난다
 머리맡을 뒤져도 물 한 모금 없다.
 하는 수 없이 일어나 등잔에 불을 붙인다.
 방안 하나 가득 찬 철모르는 어린것들
 제멋대로 그저 아무렇게나 가로세로 드러누워
 고단한 숨결은 한창 얼크러졌는데
 문득 둘째의 등록금과 발가락 나온 운동화가 어른거린다
 내가 막상 가는 날은 너희는 누구에게 손을 벌리랴
 가여운 내 아들딸들아,
 가난함에 행여 주눅 들지 말라
 사람은 우환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는 것
 백금 도가니에 넣어 단련할수록 훌륭한 보검이 된다.
 아하, 새벽은 아직 멀었나보다.



군봉 형의 그 말년이 연상된다. 군봉 형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우도의 생각을 찾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왜 이 두 집안의 아들들이 살다 간 꼴이 이런가?' 두 집안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로도 비슷했다. 제주대학총장 시절 평생교육원에 강의를 나온 풍수 선생님과 함께 우도에 가서 두 집의 터를 보인 적이 있다. 집의 앉은 방향이 맞지 않고 사람의 두상에 해당되는 집 입구로 들어가는 올레 길을 넓혀 차가 다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차가 사람의 두상을 밟고 지나가는 형상이라 그렇다는 것이었다. 이제야 생각하면 다 부질없는 이야기지만 우도의 옛집을 들를 때마다 군봉형의 서러운 인생과 쓸쓸한 골목사(史)를 상기하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생각하곤 한다.

고향 우도엔 고인이 된 초등학교 친구들도 많지만 아직도 건재한 친구들도 몇 있다. 갈 때마다 반가운 얼굴로 정말 따듯이 맞이 해줘서 '초등학교 친구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허물없는 사이구나' 하고 느낀다. 하나같이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가며 잘 살고 있다. 특히 2년 후배인 김철수는 우도 유지로 문화유산 해설사가 되었다. 가끔 서울에서 온 손님을 모시고 그 친구의 문화해설을 들을 때마다 그의 우도에 대한 애정과 해박한 상식에 너무나 아는 것이 없는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느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우도의 수놓음 문화는 정말 전승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우도는 마을 중심의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었다. 제주대 양진건 교수는 우도엔 '기성

회바당'이라는 공동 어장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 어장은 해녀들의 공동어장이었는데 여기서 채취한 전복, 해삼 등을 판 돈으로 학교 건축비도 보태고 교사월급도 일부 충당했다고 한다. 지금이야 초가지붕을 찾기 어려웠지만 당시엔 초가지붕의 이익을 잇기 위하여 공동 목장을 운영했고 돌아가면서 초가지붕을 이었다. 지금의 상조에 해당하는 영장계(契)를 통해 마을 분들이 돌아가시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일을 치렀다. 또 마을의 안녕을 위해 남자 어른들이 유교식 제법으로 제를 올렸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포제라고 하였다. 포제를 지내는 날 아침은 여자들은 집밖에 나오는 것을 금기시 하였다. 집집마다 얼마씩 추렴하여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냈다. 돼지를 잡는 날은 우리들에게도 큰 축제였다. 돼지오줌통은 축구공이 되어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그런데 최근 우도가 발전이라는 급물살을 타고 도항선을 둘러싼 기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들었다. 최근 제주도처럼 우도 또한 개발의 손길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도의 특성상 대규모의 집중 개발은 불가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각시물 휴양지 조성사업이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도는 섬 전체가 보물이며 관광지이다. 일 년 내내 쪽빛 바다를 자랑하는 우도는 옛 돌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우도올레 또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우도가 이토록 관광지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개발이 아닌 보존 덕분이다. 전형적 어촌마을 원형을 유지하면서 이뤄지는 소규모의 다각적 개발이

요구된다. 해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치나 높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2층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여 전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도는 하루 수많은 차량이 배를 통해 드나든다. 곳곳이 무너지고 파이고 몸살을 앓는 것에 원주민인 나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가능한 입도차량의 수를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입도한 차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입도세(入島稅)를 부과하여야 한다. 차량 한 대당 10만 원 정도의 입도세를 부과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입도세로 조성된 수입은 특별회계를 도입하여 전적으로 우도에 재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석면 투성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 전선도 지중화하고 쓰레기 소각장도 만들어야 한다. 일정한 금액을 문화사업과 사회복지재원으로 책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우도사람들을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나 치우는 꼴로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도항선과 같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은 특정한 업체가 아니라 우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도 주민주 형태의 사업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버스 사업도 마찬가지다. 우도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은 누군가 독점할 일이 아니라 그 수익이 내부화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다양한 우도의 향토자원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비즈니스 같은 사회적 경제모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우도는 융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옛날의 우도가 아니다. 사업을 하는 지인이 우도에 다녀와서 “우도에는 돈다발이 굴러다니더라.”고 했다. 다만 우도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노하우가 있는 지는 미지수라는 말도 덧붙였다. 20세기에는 섬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관심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올레길 현상이나 많은 관광객과 이주민이 제주로 몰려드는 것은 어쩌면 문명사의 필연이라고 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도



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우도에 관광객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제주에서도 떨어진 섬이면서 어촌마을의 원형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도의 본원적인 가치를 상실하면 누구도 우도를 찾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확실히 하는 작업은 우도사람들의 몫이다. 솔로몬은 ‘비전 없는 곳에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우도 준거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자연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도 주민들 간에 신뢰와 연대, 협력의 에토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사회적 자본 형성이 매우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도 주민들은 이제 고민하고 뭉쳐야 한다. 참혹했던 일제강점기 때 해녀 투쟁의 발원지로서 우도의 자존심과 진보의 정신을 복원시켜야 한다.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고향을 위해서 이렇다하게 한 일이 없는 나로서는 그저 미안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사실 그럴만한 힘도 나에게는 없었다. 그러나 고향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내 고향 우도는 나를 키워준 힘의 원천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들들에게 항상 말한다.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너희 선대들이 운명처럼 부딪치고 살았던 우도의 칼바람과 거친 파도를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들도 거기서 많은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다. 

문학의 예술성 더해 주는 감칠맛나는 ‘제주어 상징부사’

+ 글·사진 김순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현장에서 만나는 상징부사 ‘감동’

제주어 구술 채록을 다니면서 참으로 놀랄 때가 많다.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 삶을 조사하면서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생경한 어휘들을 만날 때면 쿵쿵쿵쿵 가슴이 다 뛰는. 그 벅차오르는 희열감이란,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나의 감성을 자극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첩어다. 개죽개죽, 팔락팔락, 오골오골, 베롱베롱, 와랑와랑, 그랑그랑, 지락지락, 땡글땡글, 비옥비옥, 조근조근, 올랐올랐. 얼마나 살가운 말들인가. 팔딱이는 생생한 이들 상징부사들은 제죽말의 말맛을 더해 준다. 이런 감흥은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¹⁾의 제주어 구술 자료 총서 1권 『나, 육십육년 물질허명 이제도록 살안』(제주시 이호 마을 고순여 할머니 생애구술)의 서문에 잘 담겨 있다.

1) 고순여 할머니는 제주어의 연금술사다. 조사 기간 내내 다음은 어떤 어휘가 튀어나올까 하는 궁금증에 가슴 뛰는 행복감을 맛볼 수 있었다. 구술 채록에는 조사와 전사 등 힘든 노동이 수반이 되지만 이런 묘미 때문에 또다시 현장에서 발길을 돌리게 된다.

2) 유월엔 기냥 자리덜이 다 알 베영 보골보골허영 막 솔지곡, 칠월 넘어가든 알 싸가든 거멍허영 가시가 세영, 경허난 자리젓은 유월에 담아야 맛이 있는 거. 칠월, 팔월엔 가시가 세여부렁 먹젠 허든 가시가 깍깍 질러불고, 유월에 담으든 복삭복삭헤영 자리젓이 맛이 있어.²⁾

1)의 예문은 필자가 제주어 구술 자료 총서 1권을 낼 때 썼던 서문의 일부다. 이 예문과 함께 2)의 예문을 예시로 드는 한편 ‘보골보골’, ‘깍깍’, ‘복삭복삭’ 등의 다양한 첩어들은 살아 있는 제주어의 맛깔을 느끼게 해주고, 이들 어휘처럼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제주어들이 기지개를 켜고 파닥파닥 살아날 때는 기쁨이 배가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골보골’은 ‘자리돔의 알이 짝 찬 모습’을 형상화한 어휘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보골보골’이 ‘적은 양의 액체가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잇따라 야단스럽게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북한어로 소개하고 있다. 북한어 ‘보골보골’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보글보글’로, 예문 2의 ‘보골보골’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깍깍’도 마찬가지다. ‘가시가 깍깍 질러불고(가시가 깍깍 찢러버리고)’에서 보듯이 제주어 ‘깍깍’은 가시가 찢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사이지만 표준어의 ‘깍깍’은 ‘까마귀나 까치 따위가 자꾸 우는 소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복삭복삭’은 ‘먹었을 때 부드럽게

1) 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 유월에는 그냥 자리돔들이 다 알 배어서 보골보골해서 매우 살지고, 칠월 넘어가면 알 싸 가면 거매 가시가 세서, 그렇게 하니까 자리돔젓은 유월에 담아야 맛이 있는 거. 칠월, 팔월엔 가시가 세여버려서 먹으려고 하면 가시가 깍깍 찢르고, 유월에 담으면 복삭복삭해서 자리돔젓이 맛이 있어.



▲ 구멍이 ‘배롱배롱’한 돌담과 무가 어우러져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하도리 무밭

잘 으깨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휘로 역시 사진에 올라 있지 않다.

이처럼 반복부사는 그 상황이나 분위기를 알지 못하고는 그 뜻을 온전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 상황의 느낌을 풍부하게 해 주고 말의 생동감을 더해주기에는 상징부사만한 것이 없다. 가령 ‘가시로 깎깎 질러불고’를 ‘가시로 깎 질러불고’나 ‘가시로 질러불고’처럼 표현하면 말맛이 확 달라진다. 어감의 감도가 다른 것은 상징부사 역할이 색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의 문인들이 독특한 제주어 접어를 문학 작품 속에 수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들이킬 때는 ‘팔락팔락’

- 3) 칀녕쿨 쥐고 서니 정수남인/영덩이는 허공에 대고 팔락팔락/얹드려 땃 허벅을 마셔댄다(문충성의 『자청비』 중에서)³⁾

예문 3)은 문충성의 서사시 「자청비」가운데 정수남이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시로 표현한 부분이다. 자신의 몸을 묶은 칀녕쿨을 자청비 손에 쥐게 한 후 영덩이를 허공에 대고 얹드려 땃 허벅의 물을 ‘팔락팔락’ 마셔대는 정수남이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 정수남이가 땃 허벅의 물을 한꺼번에 들이킬 때 나는 소리가 바로 ‘팔락팔락’인 것이다.

‘팔락팔락’은 ‘물 따위의 음료를 거침없이 자꾸 들이켜는 소리, 또는 모양’을 말한다. 뜨거운 여름날, 땀 흘리며 일한 후에 물을 마실 때의 모습이다. 목이 바짝바짝 마른 상태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들이켜게 되는데, 이때 하는 말이 “물을 경 팔락팔락 먹지 말라. ㄱ끼쳐.”이다. 표준어로 옮기면 ‘물을 그렇게 벌컥벌컥(또는 꿀꺽꿀꺽) 먹지 마라. 숨이 막히겠다.’라는 의미다. ‘ㄱ끼다’는 표준어 ‘갑시다’에 해당하는 제주어로, ‘세찬 바람이나 물 따위가 갑자기 목구멍에 들어갈 때, 숨이 막히게 된다’는 뜻이다.

3) 문충성, 『자청비』 문장, 1980, 39쪽.

별은 ‘배롱배롱’ 달은 비롱비롱

- 4) 떨어져 오라, 은밀하게/내 혼 속으로/이웃끼리/정교 나누며/零에 내재하는/목숨으로/배롱배롱(문충성 시 「꽃에게, 중에서」)⁴⁾

문충성은 자신의 시에 상징부사를 감칠맛 나게 사용한다. 예문 4)의 ‘배롱배롱’은 꽃이 피어 있는 모습, 그리고 꽃과 교감하는 모습으로 읽힌다. ‘배롱배롱’⁵⁾은 “밤은 깊어만 가고/별은 배롱배롱”⁶⁾, “별빛 하늘 우러러 배롱배롱/꽃들을 피워내고”⁷⁾처럼 쓰이기도 한다. “별은 배롱배롱”의 ‘배롱배롱’은 별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별빛 하늘 우러러 배롱배롱/꽃들을 피워내고”의 ‘배롱배롱’은 별빛 반짝이는 하늘을 우러러 꽃들이 ‘배롱배롱’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배롱배롱’은 ‘비롱비롱’, ‘버롱버롱’형으로도 나타난다.

- 5) 눈물처럼 그렇그렇 별빛 쏟아지고/달만 비롱비롱 천지가 새하얗던 한라산/정신마저 와르르 덩불더미 속에 숨은 시절/한밤중에 손톱 불며, 멍게낭/마디마디 숨죽여 끓었지(허영선의 「늦식 손가락—문임생 할머니,」 중에서)⁸⁾



▲ 불빛이 ‘버롱버롱’한 제주시가지



▲ 나무 위에서 ‘까악까악’ 우는 까마귀

예문 5)의 ‘비롱비롱’은 “별빛이 배롱배롱”에서처럼 빛의 모습을 표현한 어휘다. “달만 비롱비롱”의 ‘비롱비롱’은 ‘배롱배롱’보다는 큰말로 또 다른 말맛이 느껴진다. 시인은 또 ‘그렇그렇’, ‘마디마디’처럼 시 속에 상징부사를 활용함으로 써 시어의 감칠맛을 더하고 있다.

‘배롱배롱’은 “그 옷은 무늬가 너무 배롱배롱허영 어지럽수다.(그 옷은 무늬가 너무 알록달록해서 어지럽습니다)”처럼, ‘여러 가지 색이 알록달록한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살단 보난 배롱배롱헌 날도 이신게.(살다 보니까 배롱배롱한 날도 있는데.”처럼 웅색했던 생활이 조금 퍼서 조금 살맛이 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인다.

- 6) 흐린 날씨로 성담의 돌들이 더욱 거무칙칙해져 구멍이 비롱비롱 뚫린 누룩돌마저 단단히 여물어 보인다. 성담 쌓는 데 쓸 수 없어 그대로 밭에 뇌둔 잔돌 무더기 돛담볼도 두엄더미처럼 시커멓게 보인다.(현기영의 「도령마루의 까마귀」중에서)⁹⁾

4) 문충성, 『망각 속에 잠자는 돌』, 제주문화, 2002, 35~36쪽.

5) ‘배롱배롱’은 ‘배롱배롱’으로도 쓰인다.

6) 문충성, 『자청비』, 문장, 1980, 42쪽.

7) 문충성, 『채송화』, 『섬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 문학과 지성사, 1981, 58)

8) 허영선, 『뿌리의 나무』, 당그레, 2003, 28쪽.

9) 현기영, 『순이 삼촌, 창작과 비평사, 1980, 89쪽.

‘비룽비룽’은 예문 6)처럼 ‘구멍이 송송 뚫린 모양’을 나타내기도 한다. 화산섬 제주는 현무암이 많아 제주를 빙 둘러 돌담을 둘러쌌다. 그 돌담 구멍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구멍이 크면 ‘버룽버룽’ 또는 ‘비룽비룽’, 구멍이 작으면 ‘배룽배룽’처럼 쓰면 된다.

7) 제주 섬은 처음부터/벗름 뿐이라수다/너울뿐이라수다/벗름 고망/너울 고망/제주사름 가슴처럼/고망 버룽버룽한 섬(한기팔의 「벗름고망 너울고망」 중에서)¹⁰⁾

가슴 속에 불길 치솟을 땐 ‘와랑와랑’

‘와랑와랑’도 문학작품 속에 살려 쓸 만한 상징부사다. 『개정정보 제주어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는 ‘와랑와랑’의 뜻풀이를 보면, ‘불이 타오르는 모양’과 ‘사람이 달리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와랑-와랑 (부) ① 불이 성하게 타오르는 모양. ② 사람이 힘차게 가거나 달리는 모양. [전역]

9) 차운 밤이어도/와랑와랑 속엿 화증 재울 길 없어/활활 잠수로 씻어내던, 당신/그 해 그 날의 무발 한가운데/가릴 것도 없어진 무정한 사랑 하나 발겨놓고/낯은 그물망치고 있습니다.(허영선의「무 발을 지나며-양화옥 할머니」중에서)¹¹⁾

10) 거친오름 낮은 계곡으로 치달을 때/와랑와랑 핏물 흥건한 바닥에 너를 내려놓고/불속 뒤통 달려야 했다 아가야.(허영선의「죽은 아기를 위한 어머니의 노래」중에서)¹²⁾

예문 9)의 ‘와랑와랑’은 “차운 밤이어도/와랑와랑 속엿 화증 재울 길 없”는 것처럼 화병이 든 가슴속의 타오르는 불

기운의 모습을 표현한 경우이고, 예문 10)의 ‘와랑와랑’은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과 정신없이 달리는 모습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기꺼운 마음에, 가슴이 주체 못할 지경으로 와랑와랑 달떠오른다”¹³⁾처럼 ‘더운 기운이 세차게 피어오르’거나 ‘심술이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의 모습은 ‘와랑와랑’처럼 표현하면 된다.

감칠맛 나는 제주어 문학작품 ‘기대’

이처럼 제주어 상징부사들은 제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배태된 소중한 언어 자산들이다. 눈이 펄펄 내릴 때는 ‘눈 팡팡 온다’, 상추 따위가 연해서 야들야들할 때는 ‘어랑어랑/아랑아랑’, 잇따라 잘리거나 끊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몽창몽창’, 요령 따위를 흔들 때의 소리는 ‘댕그랑댕그랑’, 열매가 잇따라 열려 있는 모습은 ‘지락지락’, 물이 끓을 때는 ‘썹썹’, 바람이 세차게 들어올 때는 ‘칼칼칼칼’처럼 표현해보면 어떨까.

한국어의 한 특징으로 꼽히는 상징부사는 말이나 글의 맛을 한층 살려준다. 제주를 소재로, 제주의 이야기를 글로 쓸 때는 제주사람들의 내면 깊숙이 담겨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 입에 철썩철썩 달라붙은 상징부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제주문학의 묘미를 한층 높여주지 주지 않을까 싶다. 감칠맛 나는 제주어를 다양하게 활용한 문학 작품들이 쏟아지길 기대한다. 



▲ ‘댕그랑 댕그랑’ 심방들의 굿하는 소리 _ 4·3 60주기 제주 큰 굿

10) 한기팔, 『바람의 초상』, 시와 시학사, 1999, 111쪽.

11) 허영선, 『뿌리의 나무』, 당그레, 2003, 35쪽.

12) 위의 책, 22쪽.

13) 현기영, 「도령마루의 까마귀」, 『순이 삼촌』, 창작과 비평사, 1980, 88쪽.



문화 공간을 읽다

+ 글·사진 현순실 (달리도서관장)

제주 문화지형도의 변화는 '문화 공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버려진 '빈 집'을 고쳐서 창작과 발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다.

그렇게 태어난 문화공간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연극이 그렇고, 전시가 그렇고, 책이 그렇다. 건축이 예술이듯이 건축된 문화공간 역시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문화공간은 하나의 세계를 드러낸다. 모든 공간은 자기만의 정서가 있다.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따라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 소극장이나 갤러리, 서점 모두 마찬가지다.

그래서 문화공간들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문화공간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독특한 기호로 느껴지기를 원한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길 원하는 것이다. 곧 사람들의 정신적인 '충전'이 가능한 곳으로서 문화공간은 만들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 생기거나 이미 생긴 제주 속 문화공간 네 곳을 찾았다.

청춘 연극, 날 것이어서 좋다

- 예술공간 오이

젊은 연극인들로 구성된 연극단체 오이(대표 오상운)를 찾았다. 그들은 제주시 삼도2동, 예술의 거리에서 소극장인 예술공간 오이와 카페 'the 뽕뽕'을 꾸리고 있다. 오이는 대학 연극동아리 출신 친구 3명이 주축이 되어 결성했다. 올해로 4년째.

오이는 초기에 서울 대학로 등에서 룽런했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소위 실험무대는 시도도 못했다. 연극적 성숙이 그땐 일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오이 출신 전혁준씨(31)가 대본을 직접 쓴 창작극을 잇달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얼마 전에는 희곡작가인 장일홍씨(65)의 작품 '설사'를 소극장 무대에 올려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오이의 매력은 젊은 친구들이 기획, 연출, 대본, 배우 등을 모두 도맡는 데 있다. 그것도 서로 의기투합해 실험무대를 꾸준히 시도한다는 데 있다.

그들이 만든 연극 '에스에스(SS)'를 보았다. 청춘들의 고민을 담은 이야기는 동세대 관객들에게 공감을 주었다. 그들이 만든 연극은 조금 거칠었으나, 무대에서



▲ 극단 오이 창단공연 '관리인'

관객석으로 뿔어져 오는 청년배우들의 날것의 느낌은 아주 생생했다.

특히 이날 야외에서 시작한 연극적인 시도가 신선했다. 그건 작은 새싹 하나가 아스팔트 도로를 뚫고 이 세상에 막 나오는 것 같았다. 제주시 원도심의 문화지대를 가꾸는 그런 시도가 눈부셨다.

그리고 500명 회원 만들기 프로젝트(1년에 3만원, 초대장 3장+더오이카페 음료 1천원 할인 혜택) 등을 통해서 보듯이 그들의 공간에 대한 애착과 연극에 대한 애정, 청년연극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은 애뜻했다.

다른 장르와는 달리, 관객들에게 그리 친숙하지 않아 책박하기만 한 연극판에서, 젊은 연극인들이 자기들의 문화적 터전을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놀랍기도 했다.

하지만 연극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치솟는 임대료는 그들의 활동에 족쇄가 되고 있다. 여기에 '예술인 입주점포 사업'에서도 소외되어 오이는 이중삼중의 압박감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들이 임대료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실험무대를 펼칠 수 있는 해법은 진짜 없을까.

◀ 극단 오이 멤버 전혁준, 오상운, 이종훈 (좌로부터)



▲ 서점 라이킷 안주희씨(34)

“진짜 좋아하는 책, 함께 감상할까요”

– 작은 서점 라이킷

제주에 독립 출판물을 취급하는 서점이 생겼다. 제주시 칠성로에 있는 작은 서점 라이킷이다. 책 편집자인 안주희씨(34)가 ‘책이 좋아서’ 차린 책방이다.

이곳에는 신경숙, 김영하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소설책은 없다. 대신에 독립 잡지인 『더 멀리』나 『별을 쫓는 아이들』과 같이 소규모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얼마 전, 한 이름난 시인이 이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읽은 후기를 신문매체에 소개하는 등 제주의 작은 서점이 조금씩 바깥에 알려지고 있다.

10평(33㎡) 남짓한 작은 서점은 이진명 시인의 시 『봄날』에 등장하는 문방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아주 어린 날, 문방구에 있던 지퍼달린 필통과 찰고무 지우개가 아이의 마음을 자극했듯이, 이 작은 서점에 있는 많은 책들은 그것을 들여다보는 손님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라이킷에는 현재 100권이 넘는 독립 출판물과 소규모 출판사들이 만든 책들이 있다. 새 책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제주를 담다, 제주를 닦다』, 『제주도 조수 웅덩이』, 『신돌 이야기』 등 제주를 다룬 책들도 책장을 착착 채우고 있다.

라이킷은 책 외에 작가들이 손으로 만든 소품들도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는 안씨가 북아트를 배워 직접 만든 수첩들도 있다.



▲ 라이킷 전시장



▲ 갤러리 비오톱 전시장

그리고 안쪽으로는 '2평 전시장'이 있어 그림이나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안씨는 전시 공간을 무료로 빌려주는 대신 전시 관련된 엽서나 아트상품 등을 판매해 수익금을 작가와 나누고 있다.

안씨는 4년 전 제주에 정착했다. 언론사 편집기자로 일하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제주행을 시도한다.

“그저 제주도가 좋았다. 제주에서 여행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주 즐겁게 보냈다. 그러다가 문득 서점을 열고 싶었다. 그것도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나 대형 출판사에서 취급하는 책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는 서점이어야 했다. 그런 책을 통해 나와 소통하고 함께 공감할 수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서점 이름도 그래서 라이킷(like it, '좋다'는 뜻)이다.”

작은 서점 라이킷은 주인 자신이 꼼꼼히 선별한 책 리스트로 세상과 만나고 있다. 라이킷은 흔히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사유와 취미와 철학을 갖춘 작가

들에 의해 쓰인 이색적인 책으로 그런 류의 책을 찾는 이들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그녀의 작은 서점 라이킷에 등불이 켜졌다. 깜깜했던 제주시 구도심의 뒷골목이 그 불빛을 받아 환해졌다. 좋다.

도시문화 사랑방을 꿈꾸며

– 갤러리 비오톱(biotope)

조형예술가이자 섬아트연구소의 김해곤 대표(50)는 공공미술에 관해선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제주 바람을 소재로 한 바람예술제를 제주 곳곳에서 개최했었다.

공공미술사업의 하나인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그가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작업이다. 대표적인 예



▲ 갤러리 비오톱 김해곤 대표(50)



▲ 갤러리 비오톱

가 '서귀포 유토피아로' 다. 지금은 '동네잔치'로 끝났지만, 공공미술로서 사람과 사회와의 소통을 원했던 그의 꿈은 여전히 유효하다.

김 대표가 최근 제주시 도남동 주택가 미술 공간을 마련했다. 갤러리 **비오톱**이다.

갤러리 **비오톱**은 도남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해 있다. 2층짜리 하얀색 건물이다. 1층이 갤러리, 2층은 그의 아내이자 화가인 강술생씨 작업실로 쓰고 있다.

갤러리에서는 '내적 풍경의 재해석'이란 주제로 오픈전(∼9월 11일)이 한창이다. 제주 작가 60여명의 작품들은 제주의 생태·환경·인간의 본질을 현대미술로 재해석한다.

비오톱(biotop, 다양한 생물종이 공동 서식하는 장소라는 뜻. 갤러리 비오톱은 예술문화로 사람과 사회를 잇는다는 뜻을 지닌다)이란 용어의 취지와 맞닿은 전시다.

김 대표가 다음 전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화가 신동철의 '소나무전'이다. 신 화가는 2년째 제주에 살면서 제주 소나무만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한

다. 김 대표는 이 전시를 통해 제주 소나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재선충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을 마을 주민들과 자라나는 아이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그는 동굴, 곤충 등 제주 자연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기획전도 염두에 두고 있다. 마을 주민과 아이들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전시'야말로 그가 갤러리 **비오톱**에서 진행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에게 동굴에서 낙서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가 아니라 그 동굴이 왜 중요한지 이유를 생각하게 하고 전시를 보게 한다면 동굴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김 대표는 또 이곳이 제주문화의 담론을 이야기하는 공간이기를 바란다. 갤러리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는 기록하는 그런 공간을.

“문화라는 키워드와 맞으면, 전시든 담론이든 그것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장르를 불문하고 기획하겠다.” 그는 도시문화 사랑방을 꿈꾼다.

삶이 예술되는 날을 기다리다

- 서귀포문화뺏데리충전소

한국의 대표적인 행위예술가인 김백기씨(50). 한국실험예술정신(KoPAS)의 예술감독이기도 한 그는 30년 가까이 홍대에서 퍼포먼스 아트로 기반을 다져오다, 지난 2013년 봄, 예술의 유토피아를 찾아 제주에 정착했다.

그는 한국실험예술제를 비롯해 ‘드룟파티문화제’ 등 굵직한 축제들을 벌이며 예술과 사람, 농업과 예술의 조화를 예술로써 추구하고 있다. 지난해 그가 문을 연 서귀포문화뺏데리충전소는 ‘예술의 메카’를 꿈꾸는 그에게 ‘생활 속 예술’을 시도하는 멋진 실험무대가 되고 있다.



▲ 행위예술가/예술감독 김백기씨(50)

서귀포문화뺏데리충전소(이하 충전소) 조성 배경이 남다르다

충전소는 지역민인 강근수씨(전 치과의사)가 서귀포시민들을 위해 무상 기증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그는 이 공간을 비영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내주었다. 내가 이 공간을 만난 것은 운명이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어떤 실험들이 있었나

그동안 전시만 4차례 마련했다. 매월 한 차례 문화가 있는 날에 마련되는 ‘미친(美親) 데이’를 비롯해 이색적인 주제의 행사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인 충전소 아카데미, 아트 워크숍 등과 퍼포먼스, 마임, 국악, 클래식, 춤, 미술, 실험극, 실험음악, 즉흥협연, 미디어 등을 아우른 종합예술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다.

충전소는 김 감독에게 어떤 공간인가

충전소는 서귀포에서는 유일하게 민간인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두각을 보일 것이며, 그들의 예술영역을 넓혀 갈 것이다. 이곳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적 기반을 닦는 창작전력기지가 될 것이다. 미래 서귀포가 문화예술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 서귀포문화벚대리충전소 공연 (안지석의 멀티댄스)

김 감독은 '예술로 먹고 사는 문화판'을 역설해왔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해법이 있는가

지금은 문화예술과 정치, 경제, 농업, 사회일반이 서로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예술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 요즘 농업예술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있다. 농민과 예술인들이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생각이다. 새섬을 예술 섬으로 만들고 서귀포의 밤 문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제주 정착 3년째다. 그동안 서귀포문화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면 말해달라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 하드웨어는 충분히 갖춰져 있으나 콘텐츠가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다. 10년 후를 바라보고 중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주의 전통문화를 잘 살리는 것과 함께 새로운 형식의 문화 콘텐츠, 외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콘텐츠 발굴도 필요하다.

'예술의 섬' 제주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말해달라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개발은 최대한 조심스럽고 느리게 진행하면서 자연을 가급적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 곳곳을 천연 자연무대로 활용해서 자연과 인간,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최대의 예술의 섬이 되었으면 한다.

제주의 문화공간들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적극 확장하고 싶은 목적을 갖고 있다. 문화공간과 달리, 카페는 같이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기도 한다. 소설가 헤밍웨이가 카페에서 즐겨 글을 썼던 것도 조용히 있으면서 사람들 틈에 있으려는 정서 때문이었다.

갤러리, 소극장, 작은 서점, 공연장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표현하고 싶어 하고, ‘무엇으로’ 표현되고 싶어 한다. 문화공간의 욕망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상대와 교감하고, 소통하려 한다.

그런 문화공간들의 ‘몸부림’들이 지금 제주에서 펼쳐지고 있다. 제주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쫓긋 세워야 하는 이유이다. 자기 일상에 갇히기보다는 밖으로 뛰쳐나와 이들 문화공간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껴야 한다.

문화공간을 풍요롭게 느끼려면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한다. 그리고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이걸 좀 아는데...” 하는 지적 허세나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사람들과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생활이 아닐까.

‘난 어떤 연극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어떤 책을, 어떤 작가의 어느 전시를 좋아 했나’를 끊임없이 묻게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미적 감성은 어떤 것인지’를 찾게 하는 곳이 문화공간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어떤 문화공간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리라. 글 쓰는 정희진이 “책을 읽기 전의 나와 후의 나는 다르다”고 했던 것처럼. 강렬한 그림 한 점이, 연극이, 공연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나와 그대 사이에 문화공간이 있다. 이제 그 ‘공간’에 가고 싶다. 



▲ 서귀포문화벚더리충전소 공연 (미친(美親)데이 중 예술가프로그램)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



+ 글 고성기 (시조시인)

노사연의 노래 「만남」이 아니더라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아니 너와 나와 만남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만남은 필연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하루도 만남이 없는 날이 없다. 혼자 호젓한 숲길을 걸어도 수많은 들꽃과 이름 모를 작은 새와 우람한 그늘을 드리운 나이든 나무들과 발밑에 느리게 기어가는 지렁이를 비롯한 작은 곤충들을 만난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의 만남이 가장 떨리고 열리고 울리는 운명적 만남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매우 위험한 만남이기도 하여 사람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도 많다.

내가 젊었을 때(1970년대 후반) 강만길의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를 읽고 눈이 번쩍 뜨이는 큰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난다. 60년대 학교에서 배웠

던 역사와 완전히 다르게 바라본 우리의 역사, 왕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민중 중심의 역사를 보는 눈을 접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었다.

그 후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황대권의 야생초 편지』를 읽고 그 가슴 저림과 떨림을 잊을 수가 없다. 절대 고독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고귀한 의지를 접하며 정의와 자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고 우리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 것도 값진 독서의 열매였다.

더 나이 들어 광고 만드는 사람(Executive Creative Director) 박웅현을 만난 것은 내 인생에 큰 행운이며 행복이었다.

내 사랑하는 제자(도서출판 북하우스 대표)가 좋은 책을 만들었다며 책 한 권을 보내왔다. 2011년 늦가을이었

던 것 같다. 『책은 도끼다』. 지은이와 제목도 낯설고 시선을 끄는 표지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책의 첫 장에 인용된, 카프카의 『변신』 중 카프카가 한 말이 내 가슴을 쿵 치는 게 아닌가! 전에 『변신』을 읽을 때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박웅현이 인용한 것에서 충격을 받다니, 그제야 나의 책 읽기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됐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꿈꿨던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 굳어버린 내 머리를, 일상에 안주해버린 내 가슴을 도끼로 쿵! 쳐서 머리와 가슴을 쪼개버리는 충격



과 전율을 주지 못하는 책이라면, 책 읽기라면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사실 박웅현은 그때 처음 만난 게 아니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차이는 인정한다. 차별엔 도전한다’

라는 광고가 박웅현의 작품임을 알았을 때, 그는 벌써 내 곁에 와 있었다.

나는 39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관리직 6년을 빼고 33년 넘게 국어교사로 교단에 섰다. 국어와 문학, 작문, 화법 등에 인용된 작품을 맛없는 과일 먹듯 수업을 위한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읽었던 것이다. 독서량은 많았지만 내 머리를 두드리는 책은 얼마 없었던 것이다. 선생님이 모르면 안 되니까 학생들 앞에서 품 잡으며 수업하기 위해 건성건성 읽은 알팍한 도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책은 도끼다』를 읽으며 아, 독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감동과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전에 읽은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가 거기에 언급된 책들을 다시 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면, 박웅현은 어떤 책을 어떻게 읽고 씹고 맛보아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말하고 있었다.

박웅현은 『책은 도끼다』에서 자기에게 울림을 준 책들을 소개하며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콕 집어 내며 책 읽는 즐거움을 전해준다.

판화가 이철수의 「산벚나무 꽃피었는데」, 「마른풀의 노래」, 「이렇게 좋은 날」에 드러난 이철수의 다른 시선을 강조한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농일수록 즐거움을 놓지 않는다

덜된 몸! 덜 떨어진 놈 - 「땅콩」

사과가 떨어졌다

만유인력 때문이라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 「가을 사과」

다섯 번쯤 씹으면 그 맛이 허끝을 적셔온다. 박웅현은 이렇게 깊은 맛을 찾는 데 달인이다. 예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때 묻지 않은 순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지식’이 아닌 ‘감성’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피카소가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건 힘들지 않았지만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데 사십 년이 걸렸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카소의 걸작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완성되었던 것이라.

신은 장사다

사람을 든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신」이라는 시다.

그렇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놀랍고 새로운 것이다.

박웅현이 들여다 본 『김훈의 자전거 여행』은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서점에 없단다. 사서교사인 딸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구했다. 이렇게 어렵게 책을 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관광공사에서 펴낸 비매품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김훈의 소설집 『칼의 노래』, 『현의 노래』, 『강산 무진』 등을 읽으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부사나 형용사를 쓰지 않고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

는, 그러면서도 간결함과 무미건조함에서 오는 감동의 문체를 접하고 참 독특하다 생각했었는데 신문사 기자출신으로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문에 익숙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자전거 여행』에서 인용된 문장들이다.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고,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동백은 해안선을 가득 메우고도 군집으로서의 현란한 힘을 이루지 않는다.
동백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동백은 떨어져 죽을 때 주접스런 꼴을 보이지 않는다.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버린다.

동백은 진달래나 개나리, 유채꽃이나 매화처럼 군집으로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나는 동백을 보며 떨어져 한 무리가 되어 아름다운, 떨어져 더 고운 꽃이라 노래했다.

지면이 제한되어 많은 인용문을 신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용과 감상, 특히 박웅현만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들여다보기’는 단연 압권이다.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유의 말이 생각난다. 서고에 쌓인 수많은 고전과 명작, 그러나 그 가치를 꼭꼭 씹어 맛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박웅현은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인지 모른다.

김훈에 이어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와 『우리는 사랑일까』를 통해 사랑에 대한 적나라한 철학적 통찰을 보여준다. ‘사랑’, 모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신비한 단어, 사랑에 대한 정의도 분명치 않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해서 사랑만큼 인류를 감동시킨 말이 있을까. 오죽하면 김훈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라 정의했을까. 지구상 인구가 60억이면 60억 가지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는 없어도 어렵듯이 공감하는 사랑은 분명 있는 것이다.

알랭 드 보통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상대에게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사실 진정한 자아라는 것은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안정된 동일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는 이게 잘 안 된다. 유난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큼은 내가 아닌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이 좋아해 줄까가 중요해진다. 관점이 모두 상대로 돌아서는 것이 사랑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상대가 다른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았던 어떤 부분을 주목해주거나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진가를 알아줬을 때이다. ‘이 캠벨 수프가 내 식탁에 있으면 생활이고 액자 속에 있으면 예술이다.’ 당신이 그 사람을 미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액자 속에 넣어야 한다.

박웅현은 시를 사랑한다. 그가 시를

읽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감성은 시인인 내가 부끄러울 정도다. 그는 2001년 발간된 고은의 시집 『순간의 꽃』에서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내려갈 때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
4월 30일
저 서운산 연둣빛 좀 보아라
이런 날
무슨 사랑이겠는가
무슨 미움이겠는가
//
옷깃 여며라
광주 이천 불구덩이가 가마 속
그릇 하나 익어간다
//
죽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천 개의 물방울
비가 괜히 온 게 아니었다.

위에 인용된 시편들에 대한 박웅현의 감상은 시를 어렵게만 느끼고 시를 멀리한 독자들로 하여금 시를 다시 보게 한다. 고은의 수많은 시집 중에서도 유독 『순간의 꽃』에 관심을 쏟는 것은 시인의 달관과 순수(어린 아이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시인의 가슴을 제대로 파악한 것일 것이다.

박웅현의 책 읽기는 동서양을 넘나든다.

지중해의 쏟아지는 햇살, 여기에서 싹트고 꽃피운 문학도 놓치지 않고 접근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에 나오는, ‘화단에서는 군데군데 꽃이 눈을 떠, 깜짝 놀란 소리로 빨강!

하고 외쳤다'로 시작되는 지중해 문학
편에서는 한국의 김화영, 니코스 카잔
차스키, 로버트 카플란, 알베르 카뮈, 앙
드레 지드, 릴케 등의 문학 작품에 나
타난 지중해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사
랑과 예술, 자연과 인생을 엿볼 수 있
게 한다. 김화영의 『시간의 파도로 지은
성』에 나오는 '알제는 해가 비칠 때면
사랑에 떨고, 밤이면 사랑에 혼절한다.'
라는 표현이 있다. 이보다 더 지중해 사
람들의 삶과 낭만을 표현할 사람이 있
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문학작품
을 읽는 것보다 지중해의 질푸른 바다
와 눈부신 햇살에 퐁당 빠지고 싶을 것
이다.

이외에도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잘 나가던 의사 토마스가 테레
사라는 시골 여자를 만나 시골
정비사로 살아가게 되는, 연민
으로 시작한 숭고한 사랑이야
기, 토마스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연민의 대상이었던 테레사
의 위치로 자신을 내렸기 때문
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상
대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테
레사를 위해 자신이 아래로 내
려갔지요. 이 소설의 끝에서는
테레사가 토마스의 참된 사랑을
알고 미안해하며 그를 안아줍니
다. 결국 그 포옹이 마지막 춤이
되고, 두 사람은 함께 눈을 감습
니다.'*

슬픔이 형식이고 행복이 내용이었
다는 테레사와 토마스의 사랑에 대한
이 마지막 구절은 삶의 무거움과 가벼
움을 넘어선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박웅현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다른
책으로 가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거나 언
급한 책만도 50여권이 넘는다. 이 책을
통해 다른 책을 읽는 행복을 누릴 수 있
으면 이 또한 큰 기쁨일 것이다.

『책은 도끼다』에 이어 『인문학으로
광고하다』(알마 펄냄), 『어둠 단어』(북
하우스 펄냄)를 연이어 읽으며 참 행복
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박웅현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그저 그의 책을 읽으며 그와 깊은 대화
를 나누는 기쁨이 크기 때문이다. 그를
직접 만나는 것이 책으로 만나는 기쁨
을 뺏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냥 그리워하는 게 남녀 간의 사
랑에서도 더 값질 수 있다. 끝으로 나의
모자란 시 「못 보낸 편지」를 군더더기
로 덧붙인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만남'을 위하여.



▲ 고성기 시인

*'사랑한다'
너무 눈부셔*

'보고 싶다' 했습니다

*봉투에
.... 넣다
.... 보다
책상서랍에 두었지요*

*시간은
그 말을 바꿔
'그리움'이라 썼대요*

박웅현



德으로 돌아가 그림그리니, 그림과 사람이 두루 평안하네

+ 글·사진 조선희 (재단 기획팀장)



칠월 하순 땡볕 아래 초록의 절정에 이른 담쟁이 넝쿨이 몇 년 전 이른 봄에 방문했을 때, 싹틔줄처럼 외벽에 엉겨 붙어 있던 그것들이 맞나 싶었다. 하긴 시간의 흐름과 무슨 상관관이 있으랴, 뿌리가 살아 있고 뻗어 올라 갈 공간은 충분하니. 담쟁이 넝쿨이 외벽의 흰 색을 알아볼 수조차 없이 뒤덮은 귀덕화사(歸德畵舍). 제주시 애월읍 귀덕리에 있는 강요배 화백의 작업실이다.

가파른 출입로를 따라 내려가니 예전에 없던 건물이 턱하니 자리하고 있다. 내장을 따라 제주 토종 수선화와 갯녹물이 가득 피어나던 자리에 지난해부터 짓기 시작하여 올 춘삼월 상량한 갤러리 화안고(畵安庫)이다. 노출 콘크리트로 네모반듯하게, 높다랗게 우뚝 세워진 이곳은 이름처럼, '그림들이 편히 쉬는' 수장고 용도의 그림 공간일 뿐, 일반인에게는 오

픈하지 않을 생각이란다.

스물에 제주를 떠났던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은 나이 마흔. 그리고 신에 귀덕화사를 지었고, 예순을 넘겨 화안고를 세웠다. 나고 자란 삼양 동네는 개발되면서 옛 풍경과 정취를 잃어버리니 그야말로 '무정(無情)한 곳'이 되더라. 삼양과 정 반대쯤 되는 옹포에 자리를 잡았다가 다시 하귀로, 이읍고 귀덕에 이르러 이렇듯 그림과 사람이 넉넉하고 평안하게 동지를 틈 셈이다.

처음 귀덕리를 점찍었을 때 귀덕이라는 지명이 貴德이 아닌, 歸德인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는 강 화백. 세상의 貴와 德을 좇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돌아가라(歸德)는 뜻이어서 그림 그리는 집(畵舍)을 앉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흠족했다는 강 화백의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작업실은 간결하고 소박하다 못해 경건함마저 느껴진다. 마룻바닥 한쪽에 정렬돼 있는 그림물감들, 작업 중인 대형 화폭. 그리고 응접세트가 거의 전부다. 그림 작업에 필요 없거나 적어도 당장은 없어도 될 물건이라면 이 방 안에 있을 자격조차 없다는 듯, 작업실은 단순하기 그지없다. 강 화백이 관대한 것은 창(窓)이다. 곧 빛이다. 곧 화백의 시야이다.

“이곳은 조용해서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과 가깝다.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내(川)가 터지고, 태풍이 불어 닥치고...그 자연 앞에서 위력을 느껴본 사람은 안다. 그 에너지가 얼마나 진정하고 얼마나 강력한가를. 순간을 압도하는 자연의 에너지를 느끼기에 이만한 공간은 없다.”

강 화백이 작업실을 나서는 일은 좀체 없다. 특별히 가고 싶은 곳도, 가야할 곳도 없는 탓이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은 그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 서울에 사는 지인이거나 젊은 시절 고교에서 가르쳤던 제자 가족이나 그를 따르는 후배이거나. 오면 만나고 만나지 않을 땐 작업을 한다. 어차피 홀로 걷는 길 아니던가.

“바쁠 것이 없다. 오래 작업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리기 전에, 그리는 도중에 생각하는 시간이 길고 깊다. 작업은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끝낸다. 그래서 내겐 공간의 분리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요소이다. 생활감각, 휴식감각, 작업감각은 제각각 다른 것이므로...”

작업실 뒤편으로 이어진 공간이 눈에 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다. 그저 방이다. 정갈하기가 스님의 참선방과 같다. 막 해남이를 시작한 이운 햇살이 역광으로 비치는 방은 더욱 비현실적인 분위기이다. 강 화백이 잠시 드러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먼 데서 오는 반가운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공간인 듯하다.

말로는 바쁠 것이 없다 하지만, 올 여름 강 화백은 여느 때와는 달리 바쁘다. 올해 제27회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한 그는 11월 조선일보미술관 전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 갤러리 가득 보여줄 강 화백만의 ‘제주’ 구상은 이미 끝났지만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림 공간 화안고 바닥에 죽 늘어놓은 그림들과 눈맞춤하는 강 화백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는 까닭을 알 것 같다.

다시 작업실. 그동안 드나들었던 여느 화가들의 작업실 풍경과는 다르게, 그림물감 접시들이 포개져 놓인 품새가 독특하여 이유를 물었다. 물감이 마르지 않도록 접시를 덮어놓은 것이라 한다. 그런데도 마치 고즈넉한 저녁 공양을 막 마치고 난 뒤 스님의 발우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생각과 궁리, 고민들을 모두 화폭에 쏟아내고서 강 화백이 다시 머리와 가슴을 채우는 동안, 그림물감 접시들은 다음 공양을 기다리는 발우처럼 그렇게 늘 그 자리에 놓여 있을 터. 문득 언젠가는 저 접시뚜껑들을 모조리 열어놓고 격정적으로 붓을 놀리고 있는 강 화백의 뒷모습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 



그리움과 허기로 직조된 섬, 그 넘겨야 할 낙선(落線) 혹은 수평선

+ 글 홍성운 (시조시인)

터무니 있다

우리말에 ‘터무니없다’란 형용사가 있는데 이는 ‘어처구니없다’와 조어법이나 의미로 볼 때 유사하며,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터무니없다’에서 ‘터무니’의 조어는 <터+무늬>이거나 <터+문(紋)+이>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가 더 큰 설득력을 지닌다.

『터무니 있다』(푸른사상)는 오승철 시인의 세 번째 시조집이다. 총 54편이며, 소제목에 따라 4부로 구성되었고, 그 중엔 오 시인이 주로 구사하는 3수로 된 시편이 26편이나 된다. 거기에 실험 의지가 돋보이는 5수로 된 「가을이 어쨌기에」, 「판」은 형식은 물론 내용에서까지 많은 것을 함의한다.

『터무니 있다』라는 제목이 주는 진중함은 우리의 범박한 시어 사용에 일침을 가하며 동시에 시집의 무게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홀연히

일생일회

굿고 간 별뿔처럼

한라산 머채골에

그런 올레 있었네

예순 해 비바람에도 삭지 않은 터무니 있네



그해 겨울 하늘은
눈발이 아니었네
숨바꼭질하는 사이
비잉 빙 잠자리 비행기
〈4·3땅〉 중산간 마을 뺨처럼 피는 찔레

이제라도 자수하면 이승으로 다시 올라
할아버지 할머니 공공 숨은 무덤 몇 채
화덕에 또 둘러앉아
봄평으로 우는 저녁

— 「터무니 있다」 전문

위 작품에서 보여주듯 한라산 머체골은 4.3사건 때 없어진 마을이다. 6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선연하게 터는 남아 있다. 해마다 4월이면 그때 그 뺨처럼 어김없이 피어나는 찔레꽃, 시인은 오늘도 그 터를 바라보며 봄평의 목청을 빌려 '터무니 있다'고, 머체골 시비(詩碑)에 꼭꼭 눌러 새긴다.

그리움과 허기의 몸부림

오승철 시인은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문단에 나왔다. 열추 35년의 시력(詩歷)에 따른 시조집으로 『개닭이』(1988), 『누구라 종일 홀리나』(2009), 『터무니 있다』(2015) 3권과 우리시대 100인 시조선 『사고 싶은 노을』(2004) 이고 보면 과작이라도 한참 과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인의 시적 영역은 결코 좁아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그의 작품들은 널리 읽혀지고 있으며 완성도가 높다는 증거이다. 그는 시작(詩作) 활동 중에 메모하지 않는다. 뮤즈가 첫 구(句)를 준다 해도 메모하지 않고 그것을 마중물 삼아 한 편의 작품을 머릿속에서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조단에서

자신의 모든 작품을 암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인 중의 한 명이 아닐까 싶다.

오 시인의 작품 성향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나뉘지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섬'이라는 공간이 항상 존재한다. 우리의 기억이 맞다면 오 시인은 제주에서 태어나서 물으로 나가 한 달 이상 살아본 적이 없다. 토박이로 치자면 성골(聖骨) 시인인 셈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경계로 하여 북쪽은 제주시이고 남쪽은 서귀포시이다. 제주도 어느 곳이나 자동차로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풍습은 사뭇 다르다. 오 시인의 세 권의 시집에 흐르는 정서도 이와 같다. 첫 시집 『개닭이』의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고, 둘째 시집 『누구라 종일 홀리나』의 정서는 '허기'이며, 셋째 시집 『터무니 있다』의 정서는 '그리움과 허기'가 융합되어 있다. 이홍섭 시인은 작품 해설에서 "'허기'와 '그리움'은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가 낳은 쌍생아"라 했듯이, 이는 시집 전체에 흐르는 주된 정서이기도 하다.

대체 이 '그리움'과 '허기'는 어디서 발현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시인의 거처를 따라가 그 동선(動線)을 그려보는 게 먼저일 것 같다. 대체로 시인이 산남에 거처를 마련했을 때는 '그리움'의 시기이고, 산북으로 거처를 옮긴 30여 년은 '허기'의 시기이며, 다시 고향과 제주시 중간쯤에 터를 잡을 때는 '그리움'과 '허기'가 버무러진 시기이다. 그도 그럴 것이 『터무니 있다』에서는 '평 소리'가 다시 들리고, '고추잠자리'가 허기의 날갯짓을 다시 하고 있다.

그리움을 게워내는 봄평, 정착

시인의 고향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이다. 첫 시집 『개닭이』에서 보여준 자배봉, 지귀도, 평 등은 이미 시인의 고향 위미리(爲美里)의 아이콘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평은 첫

시집의 주된 객관적 상관물이었는데, 『터무니 있다』에서 다시 ‘굉’의 울음으로 그리움을 변주한다. 가령 “화덕에 또 둘러앉아 봄굉으로 우는”(『터무니 있다』), “목청 푸른 장끼 게워내는 울음”(『누이』), “주거니 받거니 잔 돌리는 장끼 소리”(『매봉에 들다』), “갓 찌낸 쇠먹리떡에/콩 박히듯 굉이 운다”(『봄굉』), “사발 깨듯 장끼가 운다”(『위미리』) 등이다. 시인의 그리움은 어디서 오는가? 단정할 수는 없어도 대상의 부재(不在)로 인한 애타한 마음에서 오지 않을까 싶다. 그 대상은 어머니, 누이, 첫사랑 등이며 발원지는 역시 고향 ‘위미리’이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몇 편의 시로 형상화되었다.

“철아, 서물 날랑 나영 섬에 안 갈티야?”
지귀도 가는 뱃길, 어머니 따라 나서면
태왁도 봉분도 잠시
갈잎으로 떠돈다

— 「별초를 끝내고」 둘째 수

저녁마다 무심히 노을 내리는 하늘처럼
어머니 또 그렇게 세상을 내린 것인데
모슬포 자리젓 냄새 가시 박힌 그리움

— 「가을이 어쨌기에」 셋째 수

나의 시는
어머니 무덤가에
설핏,
다녀가는
봄눈 아닐까.

— 「시인의 말」

시인은 별초를 끝내고 고향 옛집에 들러 지귀도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추억한다. “철아, 서물 날랑 나영 섬에 안 갈티야?” 어머니 생전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자리젓 냄새만 말아도 어머니가 그립다. 모슬포 자리 가시가 목젓에 박힌 것처럼... 가타부타 무슨 말을 더 붙일까. 「시인의 말」을 읽으면 된다. 이 시집은 어머니 영전에 바치는 것이다.

누이에 대한 그리움은 「누이」라는 단수 작품에서 감각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쇠똥이라
그 냄새 풀풀 감아 올린 새순이라
목청이 푸른 장끼 게워내는 울음이라
초파일
그리움 건너
더덕더덕 더덕발

— 「누이」 전문

위 시편은 쇠똥의 후각, 새순의 시각, 장끼의 청각, ‘목청이 푸른’과 같이 공감각적 이미지가 두루 버무려져 있다. 화자는 초파일 날 어느 더덕발을 본다. 어린 시절 누이와 소를 먹이던 둔덕ilter인데, 지금은 장끼가 울음을 게워내는 더덕발으로 변했고, 그때 그 누이는 초파일 꽃등으로나 올 뿐이다. 이 작품은 「누이」라는 제목을 달 때 사유의 깊이가 더해진다. 또한 누이와의 추억은 「고향 동백꽃만 보면」, 「판」에서 곡진하게 그려지고 있다.

오 시인의 첫사랑은 화입(火入)에도 ‘죽지 않는 유충’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데, 연민과 그리움을 줄곧 흘리는 화수분이다.

하늘은 말쑥으로 세상을 거느리고
도랑물은 구름으로 하늘을 거느리네

봄날이 다하는 길목
누가 날 거느리나

볼 장 다 본 장다리꽃
설렘도 그쳤는데
삼십 년 외면해온 그 오름에 이끌렸네
첫 시집 못 바친 봉분
무릎 꿇고 싶었네
사랑도 첫사랑은
한 생애 허기 같은 거
주거니 받거니 잔 돌리는 장끼 소리
봄 들판 깽판을 놓듯 푸룽푸룽 갈아엎네

— 「매봉에 들다」 전문

푹푹한 약관(弱冠)에 별리를 맛보았던 시인은 이순(耳順)을 목전에 두고도 첫사랑은 지워지지 않는 “허기 같은 거”라 말한다. 아닌 척 삼십여 년을 외면하고 살아온 그 오름, 그 봉분에 무릎을 꿇은, “첫 시집을 못 바친” 회한을 토해내는 “볼 장 다 본 장다리꽃”, 희끗희끗한 사내의 순정을 어디에 비길까. 조금은 근엄하게 목회자의 설교 같은 어조로 시작한 첫수인데, 셋째 수에서 화자는 “주거니 받거니 잔 돌리”고 나서는 봄 들판에 소리라도 지르는 것일까. 아니다! 장끼가 그리움을 게워내는 것이다. 장끼는 시인이 한평생 동행한 그리움의 대변자가 아니겠느냐.

허기가 물어나는 고추잠자리 날갯짓, 유랑(流浪)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시인이란 누구나 유랑 기질을 갖고 있지 않을까. 여기서 시인의 유랑이란 ‘일정한 처처가 없이 떠돌아다님’을 뜻하지만, 거기에 한 스푼의 낭만을

넣어 저어주면 그 의미가 더 가까워질 것 같다.

오 시인은 30여 년 전 일자리를 찾아 산복인 제주시로 거처를 옮겼다. 제주에서 제일 긴 하천인 한천(漢川) 옆 납작 지붕이 빼딱하게 나앉은 단칸방에 짐을 풀었다. 고추잠자리가 날갯짓을 시작했다. 「고추잠자리」 연작, 「사고 싶은 노을」과 같은 가편(佳篇)들이 들어 있는 두 번째 시집 『누구라 종일 홀리나』가 발간되기까지, 20여 년의 기간을 냇가에 징검돌을 놓듯 단출한 짐을 조금씩 상류로 옮기며 허기진 날개를 폈다.

가을하늘 다하는
갈래 길
그 언저리,
억새 밑동 마르는 종소리 날아와서
못 이룬 들녘의 꿈이
십자가로 앉았다

— 「고추잠자리 4」 첫 수

마른 억새풀 하나
이 세상 축이 되어
온 마을 푸짐하게 잔치상을 받는 날도
하늘과 바다와 땅의 구도를 견고한
그리움으로 세우면서

사글세
우리 지붕만
빼딱하게 앉혀 났다

— 「고추잠자리 6」 셋째 수

고추잠자리는 가을의 전령이다. 잘 익은 고추 같은 쫄지를 꼬물거리며 허공을 나는 모습, 바싹 마른 날개, 마른 억새

풀 끝에 잠시 앉으면, 종소리가 명징한 어느 작은 시골 예배당의 십자가 같다. 가을은 풍요롭다. 그 예 더 가벼운, 더 허기진 고추잠자리, 영락없이 시인과 닮았다. 하지만 시인은 “온 마을 푸짐하게 잔치상을 받는 날”도 “사글세/우리 지붕만/뼉뼉하게 앉혀 뵈다”고 진술한다. 시인의 또 다른 사회관을 읽어낼 수 있다.

시인의 품새에 잘 어울리는 또 하나의 상징어를 찾아보려면 우리는 주저 없이 의태어 ‘펄펄펄’을 찾을 것이다. 이는 함박눈이 내리는 모습을 나타낸 제주어인데, 때로는 하얀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걸어가는 가난한 선비의 모습으로 연상되기도 한다. 시인에게 도포를 입히면 꼭 그렇겠단 싫어진다. 걸음새가 그렇고, 욕심 없는 마음이 그렇고, 그러다 슬쩍 넘겨다보는 해학적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다.

오름은 능선 하나 새들에게 내어주고
또 하나는 펄펄펄 눈발에 내어주네
등산로 슬쩍 비켜서 묘비도 허락했네

— 「화입(火入)」 첫 수

그냥
넙죽넙죽
받기만 하느냐고?

천만에,
나도 가끔은 ‘이쁘네’ 말공양했다

잘 여문
모감줄 열매
뚝 따낸
이 가을날

— 「시월」 전문

울 추석엔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네
가을도 청명한 가을
떠 흐르기 딱 좋은 날
차례상 서성거리는 며느리밥풀꽃같이
서너 군데 친척집 돌아 종손집 모여들면
물 건너, 이승 건너 두런두런 빈자리
옥돔에 돛게기적갈
아니 오고 배길까

— 「고추잠자리 18」

인용한 「화입(火入)」에서 오름과 화자는 등가이다. 오름은 한때 불을 품었던 화산체이다. 그 뜨거움을 식히기까지 오름은 오랜 세월을 참고 견디어 넉넉한 오지랖을 갖는다. 오름은 따지지 않는다. 오름에서는 산 자, 죽은 자, 생물, 무생물의 층위가 없다. 함박눈이 ‘펄펄펄’ 내리는 날은 능선도 펄펄펄, 시인도 펄펄펄 그렇게 평화롭다. 이런 날 오름은 시인이 되고, 시인은 오름이 된다.

한편 시인의 해학(諧謔)적 표현은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위 작품 「시월」에서도 그 한 면을 보여준다. 작 익은 모감주 열매를 뚝 따내고 머쓱해진 시인은 그 염주알 같은 열매를 보며 “이쁘네” 한마디 ‘말 공양’했다는 익살이 돋보인다.

위 「고추잠자리 18」에서 “울 추석엔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네”라 진술한다. 누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화자인가, 고추잠자리인가, 아니면 차례상 위패의 혼백인가. 며느리밥풀꽃 같은 가을 허기라면 “옥돔에 돛게기적갈”의 유혹에 정말 아니 오고 배길까 싶다. 누구라도 상관없다.

넘겨야 할 낙선(落線) 혹은 수평선

시인의 그리움은 위미리에서 발원하여 봄평의 울음으로 환유되지만, 가을이면 시인의 허기는 고추잠자리의 날갯짓으로 유랑한다. 시인은 위미리(爲美里)를 구심점으로 섬 속의 섬을 공전하듯 드나들며 시적 공간을 넓힌다. 지귀도, 섶섬, 새섬, 문섬, 범섬, 마라도, 우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등 유인도건 무인도건 그의 감성의 그물을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시인의 말대로 “수평선은 넘겨야 할 낙선(落線)”(「경이죽」)이라 하지만 결코 넘지 않는다.

시인은 섬에서 그리움과 허기를 밀고 당기며 시의 밀도를 높여준다.

솔뚜껑 손잡이 같네
오름 위에 돛은 무덤
노루귀 너도바람꽃 얼음새꽃 까치무릇
솔뚜껑 여닫는 사이 쇠물 끓는 봄이 오네
그런 봄 그런 오후 바람 안 나면 사람이라
장다리꽃 담 넘어 수작하는 어느 올레
지나다 바람결에도 슬쩍 한번 묻는 말
“셔?”

그러네 제주에선 소리보다 바람이 빨라
‘안에 계셔?’ 그 말조차 다 흘리고 지워져
마지막 겨우 당도한
고백 같은
그 말
“셔?”

— 「“셔?”」 전문

위 「셔?」는 많은 독자와 평자들이 이야기를 한 터라 한 마디 하면 그것은 군말이 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독자로서 「셔?」를 다시 읽는 것은 여전히 큰 즐거움이다.

오름은 마그마의 무덤이다. 한때 이글거렸던 용암이 다 식고 난 거푸집 같은 거다. 거기에 사람의 무덤이 놓여 있다. 범박하게 말하면 이층 무덤 같은 것인데 시인은 사람의 무덤을 “솔뚜껑 손잡이” 같다고 했다. 거대한 솔, 그 솔이 펄펄 끓어 노루귀, 너도바람꽃, 얼음새꽃, 까치무릇 같은 봄꽃을 무더기로 토해낸다. 무덤에서 생명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둘째 수에서 “장다리꽃 담 넘어 수작하는”에서 장다리꽃은 무나 배추 따위의 키 큰 꽃줄기를 이르는데 담장 너머로 흔들리는 모습을 ‘수작’이라 묘사했다. 시집의 소재목이기도 한 ‘수작하는 어느 올레’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섬의 ‘올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레’는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이르는 제주어이다. 제주의 마을은 집성촌이 많으며, 설령 그 집성촌에서 타성을 가졌더라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을 모두 ‘삼촌’이라 부르듯이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 의식이 강한 편이다. 그리고 마을에는 길이 아닌 올담을 넘어 올레와 올레를 이어주는 지름길이 형성되곤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것을 용인하는 것은 섬의 습속이라 하겠다. 올담을 넘어가다 집주인이 있으면 머쓱하지만 가볍게 인사하면 된다. 이 시편에서 화자도 그렇다. 올레를 가다 ‘슬쩍’ 넘겨보고는 그냥 ‘셔?’하고 묻는 것이다. 대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슬쩍’은 시인이 좋아 하는 시어이다. ‘슬쩍’을 ‘흥이 되지 않을 약간’으로 해석하다 보면 시인의 입가엔 어느새 얇은 미소가 이는 것 같다.

셋째 수는 제주어 “셔?”의 조어법을 나타내는데 “안에 계셔?”의 문장에서 떨어져 나갈 것은 다 떨어져나가고 잔액만 남은 것이다. 그 탈각작용의 주체는 바로 바람이다. 그래서 “셔?”는 바람의 언어이다. 얼마 전에 물에 사는 한 문인이 「셔?」를 낭송하는 것을 보았다. 작품에 대한 해박한 설명에

이어 작품을 낭송하자 청중들의 많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필자도 그 중 한명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면 “셔?”의 발음이었다. 그 분은 “셔!”로 단호하게 발음했다. 시가 푹 끊겼다. 사실 “셔?”라는 물음은 대답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시인의 말대로 “마지막 겨우 당도한/고백 같은” 말이다. 그래서 ‘셔~?’로 조금 작게, 울림이 있게 낭송하는 게 정서에 맞지 않을까싶었다.

이제 시인은 30여 년 직장생활을 내려놓고 ‘오목이석재(五木二石齋)’에 그의 글 보따리를 풀었다. 출근하듯, 번(番)을 서듯 서재와 다량쉬오름을 번갈아 오간다.

녹원 선생 둘러보고

‘오목이석재(五木二石齋)’라 하네

그 뜻 더 묻지 않고 민머리뭇 팡팡치네

주인이

바뀌든 말든

꽃 게우는 하굴나무

— 「삐죽새」 셋째 수

아무렴, 이 사람아

우리가 왜 만났겠나

솔체꽃 하나만 저도 먹먹한 이승에서

우연히 세상의 번(番)을 함께 서러 왔잖는가

— 「고승사」 셋째 수

‘오목이석재’는 녹원 선생이 지어준 당호(堂號)이며, 제주 시와 위미리의 중간쯤에 자리한 시인의 서재이다.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오래도록 지켜온 ‘하굴나무’인가 아니면 지금 현판을 거는 시인인가. “솔체꽃 하나만 저도 먹먹한 이승”인데, 따져 뭐 하겠는가. “세상의 번(番)을 함께 서면” 되잖는가. 그 리움도 허기도 함께 하면 되잖는가.

『터무니 있다』를 처음 여는 낯모를 독자를 우리는 부러워한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구심점으로 주변에 마을들이 형성되었고, 바다에는 섬들이 행성처럼 놓여 있다. 오승철 시인의 시조집 『터무니 있다』는 아름답지만 굴곡진 역사가 배어있는 섬. 그 섬의 그리움과 허기, 그리고 서사를 조각조각 붙여 놓았다. ‘그리움/허기’는 시집의 열쇠 말이며 꿩/고추잠자리, ‘정착/유랑’으로 환유되기도 한다. 수평선을 넘겨야 할 낙선(落線)이라 생각하면서도 결코 넘지 않는다. 시인의 고향 위미리가 당기는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참을 만큼 참았다며

이른 봄 꿩이 운다

자배봉 아랫도리 물오르는 부활절 아침

위미리 옛집 그 너머

사발 깨듯 장끼가 운다

— 「위미리」 전문

장 그르니에는 자신의 산문집 『섬』에서 “달은 우리에게 늘 똑 같은 한 쪽만 보여준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 또한 그러하다. 그들의 삶의 가려진 쪽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으로밖에 알지 못하는데 정작 단 하나 중요한 것은 그쪽이다.”고 했다. 우리도 『터무니 있다』를 읽으면서 놓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일 수 있다.

그의 제자 알베르 카뮈의 서문 한 구절 “오늘 처음으로 이 『섬』을 열어보게 되는 저 낯모르는 젊은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러워한다.”를 패러디해본다.

『터무니 있다』를 처음 여는 낯모르는 독자를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부러워한다. 

우리 동네 무근성

골목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이
만들어낸 동네 역사책

+ 글·사진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2003년 서울에서는 청계천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다. 청계천 복원에 대한 찬반의견이 강하게 대립한 가운데 복원 공사는 진행되었고 청계천에는 다시 물이 흐르게 되었다. 현재 청계천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지만, 복원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고가도로인 삼일고가도로가 철거되었고, 청계천 일대에서 약 45년간 생계를 꾸려오던 사람들의 삶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다행히도 청계천 복원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자 곧 사라져버릴 당시 청계천의 모습이 갖고 있던 의미를 꿰뚫어본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작가들이었다. 몇몇 작가들이 청계천에 관해 작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개 공사가 시작된 1958년부터 복원 공사가 시작된 2003년까지 청계천 일대에 겹겹이 쌓인 세월의 흔적이 작품으로 남겨졌다.



2006년의 무근성



작가들이 담았던 청계천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작가를 포함해 그곳을 스쳐가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 있는 장소였다. 작가들과 달리 일반사람들은 오랜 시간의 때가 묻은 동네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에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았다. 즉 현재의 평범한 이야기들이 미래에 기억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은 것이다. 대신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은 더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인물,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는 역사는 동네의 작은 이야기들을 끌어안기에 너무 큰 이야기다. 실제로 역사에는 청계천 복개와 복원이라는 큰 사건만이 기록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청계천을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은 한때 사람들의 추억 속에 남아 있다가 잊힐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작가들은 그 일상을 작품으로 담았을까?

기억, 기록,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전시가 '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림책 갤러리 제라진에서 열렸다. 이곳에서 열린 「우리 동네 무근성」전은 중요한 사건이 아닌 동네사람들의 기억을 모아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위인이 아닌 동네사람들을 역사 서술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 전시를 기획한 분들은 「우리 동네 무근성」전을 위해서 동네 어르신들과 1980년대 북초등학교를 다닌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도 듣고 자료도 모았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동네 무근성」전에는 2006년 출판된 그림책 「우리 동네 무근성」의 원화와 함께 2006년과 2015년의 무근성 주변 사진들, 무근성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옛날 사진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지도 등이 전시되었다.

무근성에서 사신 분들에게 1980년대는 무근성의 “가장 빛났던 시절”이었다. 그때까지 무근성은 제주도에서 가장 잘사는 동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쇠락하여 그림책이 그려진 2006년에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밀려났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무근성 주변으로 예술가들이 모이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공간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무근성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전시된 원화작품과 사진들에는 1980년대 학교를 다녔던 북초등학교 동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무근성이 가장 빛났던 모습, 2006년 무근성의 옛 영화(榮華)를 그리워하는 정서, 2015년 변화 속에서 다시 빛을 찾아가는 희망이 담겼다. 이렇듯 전시장에는 무근성의 작은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우리 동네 무근성」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은 무근성의 역사가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추억 속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모여 마을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전시를 위해 옛 사진을 빌려준 분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추억과 함께 의미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또 옛날에는 복개될 탑동의 몽돌을 주워 오신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머니가 모아놓은 몽돌이 탑동 역사의 일부가 되어 당시를 기억하게 하는 전시물이 된 것을 본 몽돌의 소장자는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들의 추억이 어떻게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역사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마 현재의 삶을 조금은 다르게 살아갈 것이다.

옛날과 지금을 지도 안에서 동시에 구현하려고 했던 ‘함께 만드는 무근성 지도’는 추억으로 만들어진 과거에 관람객의 참여로 현재가 더해짐으로써 완성되었다. 아이들이 사진과 지도를 보고,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른신들의 추억을 공유하는 것은 장소에 축적된 삶들이 아이들에게 전승되고 공유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그 장소와 그 장소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또한 우리에게서 위대한 사람들의 삶이나 대단한 사건보다도 동네사람들이나 가족과의 추억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더 크다. 무근성 주변에 사는 관람객들은 사진들을 보면서 옛 추억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한 뒤 이제 이 골목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하는가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동네사람들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 과거의 일상이 역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물리적 공간이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뀌었다.

현재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떠난 사람들과 지금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기억을 공유하는 작업이고 그들을 위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이다. 과거가 현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처럼 현재에 대한 이해가 다시 미래를 꿈꾸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작가들이,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던 복원 당시 청계천의 일상을 담아내고 역사가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전시 「우리 동네 무근성」이 끝난 뒤에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2015년의 무근성





더 많은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그분들의 기억을 모아 앞으로 지도와 책으로 정리해 내는 일이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 가운데 사라진 더 많은 기억들이 다시 무근성의 역사에 등장할 것이다.

마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공간에게 「우리 동네 무근성」전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시가 끝난 이후 계속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동네에서 문화와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동네에 자리한 제라진이 지역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까라는 논의 중에 제주그림책연구회와 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 제주가 협력하게 된 것은 예술가들이나 단체가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요즘 ‘원도심’,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응모를 하겠다는 발표도 한 몫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 제주도가 선정될 경우 5년 동안 100억 원이 지원된다고 한다. 사람들은 큰돈을 지원받게 되면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도 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의



모습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변할 것이라는 걱정도 앞선다. 동네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동네를 천천히 바뀌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 권력이 동네 사람들의 뜻과 상관없이 동네를 개발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원도심은 변할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 복원이나 동대문 운동장을 헐고 동대문디자인 플라자를 세우는 정도의 변화는 제주도에도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이미 복개와 복원공사가 이루어졌던 산지천이 다시 탐라문화광장 조성으로 바뀌고 있었으며, 강정에는 해군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함덕이나 협재해수욕장이 부산 해운대처럼 변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조용한 해변 마을 월정리는 단 2년 만에,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카페가 늘어난 관광지로 바뀌었다.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이제 변화를 어떻게 지연시킬 것인가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동네 무근성」전의 기획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기억을 모으고 지금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다. 동네사람들이 자신들의 추억으로 동네의 역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예전의 산지천을, 강정을, 월정리를, 무근성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
문
화

그들의 연극인생 '50년'을 기대하며

+ 글·사진 강용준 (극작가)

《극단 이어도》
에서의

만남

1981년 가을이었던가 초로의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다. 모 고등학교 교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분은 필자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아들이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막막하니 연극을 통하여 성격을 개조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했더니 아들을 잘 좀 지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아들은 이미 극단에 입단해 연습을 하고 있던 강상훈이었다. 대학교 1학년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당시는 《극단 이어도》가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체 연습실이 없어 무용학원의 일과가 끝나면 빌려서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연습을 하던 때였다. 그때 극단에는 동갑내기 영문과 여학생이 이미 입단해 있었는데 아주 명석하고 열정적으로 연습에 임하던 정민자였다.

남자처럼 호방한 성격의 정민자와 내성적인 강상훈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는데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정민자와 강상훈은 한 방을 쓰게 되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정민자가 임신을 하고 배가 점점 불어가자 더 이상 갈라놓을 수 없음을 알고 늦은 결혼식을 올려 주었다. 그해가 1987년이었는데 하객들은 대부분 연극인들이었다. 결혼은 했지만 둘은 수입이 없었다. 그나마 정민자가 애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집세와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출산으로 인해 그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면서 아기 분유 값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연극을 하면서 얻는 수입이란 보잘 것 없었다. 강상훈은 직장에도 다녀보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오래 견디지 못했다. 가장으로서 산불 감시원과 막노동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지만 연극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다. 필자가 극단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강상훈이 대표를 맡았다. 그는 의욕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망치질과 페인트칠을 손수하며 소극장을 만들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사설 소극장이 만들어졌고, 소극장을 통하여 《극단 이어도》의 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소극장이 생기면서 한 작품을 장기간 공연하는 것이 가능하고, 연기자의 연기력도 높아지면서 관극회원도 생기게 되었다. 당시 중앙로 빌딩 4층 꼭대기에 마련된 연극 전용 소극장은 20여 명이 들어서면 꽉 차는 작은 공연장이었다. 하지만 연극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제주에 연극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 예술을 사랑하



는 제주의 젊은 지성들에게는 낭만의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소극장 운영의 어려움, 계속되는 공연의 적자, 단원들과의 불협화음 등으로 그들은 12년 동안의 《극단 이어도》 생활을 접고 독립의 길을 택했다.

《극단 세이레 극장》과

《세이레 아트센터》

1992년 제주에서 제10회 전국연극제가 열리고, 이 대회를 기회로 제주에 연극 붐이 일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극단체들이 대어섯 개가 창립되면서 활발한 연극 공연이 전개되었다.

《극단 이어도》를 나온 강상훈은 1992년 10월 예술기획 《세이레》를 발족하여 그 산하에 《극단 세이레극장》을 창단했다. 세이레라는 명칭은 3월 7일 즉 웅녀가 인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마늘과 쑥을 먹으며 캄캄한 동굴에서 기다린 통과 의례 인고의 시간을 의미한다. 《극단 세이레극장》은 1993년 「위기의 여자」로 동문로 《자유무대》에서 창립공연을 가졌다.

한편 이때에 창단을 축하하는 공연도 이루어졌는데, 경남 창원 《극단 미소》의 「장돌뱅이」, 전북 익산 《극단 토지》의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서울 《사물놀이》의 「뜯쇠」, 그리고 제주 《자유무대》의 「저수지」가 참가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는 제1회 소극장 축제를 개최했는데 경남 창원 《극단 미소》, 제주 《극단 무》, 《자유무대》, 《다솜》, 《세이레》 등이 참가했다.

《극단 세이레》도 창단한 후 지방 연극의 살길은 소극장운동을 임을 깨달았지만 소극장을 만들고 문 닫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그가 처음 문을 연 소극장은 1993년 제주시 동문로 제주동초등학교 건너편 뒷골목 지하였는데, 그 당시 《극단 자유무대》와 통합하면서 자유무대 소극장을 인수하여 《세이레소극장》으로 개명했다. 초기에는 육지의 극단을 초청하여 전국소극장 축제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운영난에 시달리다 5년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 그들은 전문 연극인으로 살기 위하여 작은 봉고차에 무대, 소품, 의상 등을 싣고 도내는 물론 육지 순회 공연까지 다녀올 정도로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이후 제주시 용담동 제주사대부고 들머리로 거처를 옮겼으나 경제 한파와 전국적인 연극 활동의 침체로 인하여 암울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셋집 한쪽에 살림집을 꾸미고 한편엔 학원을 꾸리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나갔다. 지하에는 소극장도 만들었다. 낮에는 웅변, 영어, 미술을 가르치고 저녁엔 연극연습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렇다 할 만한 공연의 성과는 올리지 못했다.

그러다 신제주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소극장을 만들었는데, 잘 나가던 백화점에 동지를



들었다가 백화점이 부도나는 바람에 손을 털고 나오기도 했다.

2007년 신제주 코스모스 사거리 지하로 극단을 옮기고 네 번째로 소극장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 소극장 공간을 예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이레아트센터》를 창설했다. 이후 《세이레아트센터》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주부연극교실, 인형극 교실, 토요연극교실을 열면서 여성을 주제로 한 연극 창작 등의 사업을 기획하면서 활동했다.

《세이레아트센터》는 지하의 넓은 공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 다각적으로 활용했는데, 소극장은 각 60석 규모를 갖춘 1관과 2관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1관은 어린이극장의 공연장이며 단원들의 연습실과 예술교육장소로 활용했다. 2관은 정기공연장으로 하나의 작품을 제작하면 한 달 이상 장기공연하기 때문에 상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로비에는 북카페와 갤러리를 만들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사무실, 세트 및 소품 보관실, 의상보관소, 간이 숙소와 주방이 갖춰져 있었다.

그리고 이 공간들은 자체 공연만 겹치지 않으면 타 단체에게 대관을 했다. 그렇게 7년 동안 운영되던 소극장은 2013년 태풍 ‘나리’에 직격탄을 맞고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다. 물에 잠긴 지하 극장을 복구하기엔 엄두를 낼 수 없는 정도였다.



그들 부부는 결국 큰 결단을 내렸다.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오라파출소 뒤편 교회 건물 지하 넓은 공간으로 소극장을 옮기기로 했다. 중기자금도 빌리고 조금씩 부어오던 적금도 깨서 소극장 공사에 투자했다. 단원 몇 명과 육지에서 온 공연장 건축 전문가와 함께 한 겨울 추위 속에서 자체 공사를 하면서 《세이레아트센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2014년 개관공연을 가졌다.

현재의 아트센터는 120석의 객석을 갖춘 소극장에 북카페와 휴게실, 분장실과 의상실, 소품실, 자그마한 주방과 사무실까지 갖춘 문화복합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두 부부는 어린이극장, 주부연극교실, 직장인 연극교실, 청소년 연극교실 등 기획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사업으로 신화를 활용한 어린이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극단 세이레극장》의

성과

극단 세이레는 소극장운동을 펼치면서 레퍼터리 형식의 작품을 많이 제작했다.

소극장 레퍼터리 작품으로 「위기의 여자」, 「콜렉터」, 「굿나잇, 마더」, 「북어대가리」, 「배비장전」, 「늙은 부부이야기」,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등이 있고, 소극장축제 참가작품으로 「사랑을 찾아서」, 「타피스트」, 「출구」, 「밥」, 「방울소리」, 「하늘에 핀 등불」, 「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를 공연했다. 2009년부터는 세계명작산책시리즈를 제작 공연하고 있는데 「백조의 노래」, 「아일랜드」, 「수업」, 「잘 자요 엄마」, 「하녀들」 등이 그 성과물이다.

그리고 소극장운동 작품으로 「외할머니」, 「북어대가리」, 「다시 부르는 사모곡」, 「심청구출작전」 등을 공연했으며, 최근에 와서 정민자 연출에 의한 여성연극시리즈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길 위에 서다」, 「두 번 한 일, 세 번이라고 못해」, 「가희의 외출」, 「여자의 방」, 「엄마의 여행」 등의 창작 공연이 그것이다. 그리고 제주신화를 연극화하는 작업도 펼치고 있는데 「천년의 사랑 백주또」,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 등을 무대화했다.

그런가 하면 극단세이레는 전국연극제와는 인연이 없는 듯하다.

그것은 어느 지역에서처럼 지역예선대회 집행부의 텃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몇 번 참가한 본선대회에서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타 지역 극단과의 지속적인 교류, 주부연극교실 운영을 통한 연극 교육과 도

내 연극 인구의 확산은 기억해야 할 업적이다. 2010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아 공연장 상주공연단체의 자격을 가지면서,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공연뿐만 아니라 예술전용공간 지원사업, 문화예술육성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제주의 대표 극단으로서의 스펙을 쌓고 있다.

연극인생 35주년 기념 공연

「늙은 부부 이야기」

강상훈, 정민자 부부가 같은 무대에 연기자로 선 경우는 연극 초창기를 빼고는 거의 없다. 한 사람이 연출을 맡으면 한 사람은 연기자로 무대에 섰다. 그간에 주변에서 같은 무대에 서라는 권유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했다. 그래서 35년이 되는 해 큰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이 「늙은 부부 이야기」는 2010년인가 세이레에서 무대화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노인들의 마지막 사랑이야기다.

“젊은이들의 첫사랑이 주는 풋풋함은 없지만 ‘죽음’의 언저리에서 시작된 사랑은 그래서 더욱 애달프고 가슴시리다. 젊은이들처럼 화려한 이벤트나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두 노인의 모습에 잔잔한 감동과 새로운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프로그램에 실린 연출의도에서 그들의 연극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우리 부부가 연극을 시작한 지 올해가 35년째이다. 그동안 힘든 일도 많고 보람 있었던 일도 어찌 없었겠는가마는 무엇보다도 벌써 35년인가 하는 회한이 든다. 소극장운동을 꿈꾸며 소극장을 열고 닫고를 다섯 번이나 했으니 그만할 때도 됐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세이레아트센터를 열고 남은 인생을 여기서 묻자고 다짐도 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연극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이번에 자기점검을 하려한다. 지역에서 연극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35년이나 꾸준히 해 왔으며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35년 동안 한 우물을 파면서 이만큼 밖에 이루지 못했냐는 자책을 먼저 하게 된다.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해마다 집세 걱정, 단원들 출연료 걱정, 아등바등하며 살았는데, 이만큼밖에 못 이루었다. 주위에서는 둘만의 연극도 기획해보라는 권유를 많이들 했었다. 30, 33주년 하면서 미루다보니 35주년이나 됐는데 한편으로는 보여드리고 싶다. 35년 같은 연극작업을 하면서도 처음 같이 무대에 오른 단 한 작품이다. 그 후로는 연출과 출연으로 참여했지, 그래서 용기를 내어 같이 연기하기로 했다. 그런데 작품을 고르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인들 이야기만 고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나이가 벌써 55세나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좋은 작품으로 잃어버린 관객들을 무대로 돌아오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작품을 준비한다.”

한편 정민자는 KBS제주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설문대할망’으로 정기 출연하고 있으며, 강상훈은 KBS1TV 주간 프로그램 ‘보물섬’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오늘도 그들은 무대에 선다. 이들 부부가 연극인생 50년이 되는 해에 자기들 이야기를 작품으로 쓰고 무대화하여 「늙은 연극인 부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공연하여도 충분히 감동이 있을 것이다. 기대해 본다. 

전국 문화예술기획자들, 지역 상생을 고민하다

지난 7월 5일에서 6일 양일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비아아트 등지에서 (사)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대표 이장희)와 비아아트(대표 박은희) 주최로 문화예술기획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재생'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광주·순천·목포·군산·청주·경기·서울 등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기획자들은 각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윤정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목포), 허명수·이강숙 디투문화공동체 공동대표(순천), 하루 미테-우그로 대표(광주), 이한호 쥬스컴퍼니 대표(광주), 박성현 신시와협동조합 대표(광



주), 서진옥 창작문화공간여인숙 큐레이터(군산), 이장희 (사)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제주)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문화예술기획자들은 이날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가?'와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토론하고 지역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하루 (미테-우그로 대표)

“마을미술프로젝트가 공공자금 지원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예술가들의 예술성이 소비된 후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예술가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 싶다.”

▷ 이한호 (쥬스컴퍼니 대표)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박성현 (신시와협동조합 대표)

“예술가가 마을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제안하고, 실제로 도시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이장희 (사)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문화이주작가가 급격하게 늘면서 그들과 제주예술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레지던시프로그램으로 제주에 내려왔다가 정착한 경우가 많은데,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제주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장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News
&
Issues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지금 필요한 건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도시문화기획가!**

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공모사업에서 양성기관으로 선정, 본격적인 인력양성에 나섰다.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총 5개월간의 일정으로 강좌형 이론교육, 실무 워크숍, 현장 사례연구 등의 형태로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도시문화기획가 되기**’ 과정을 **투-트랙(two track)**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예술가 되기**’ 과정은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가 대상이며, 예술로 도시에 활력을 주고 예술로 도시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문화적 도시기획가로 거듭나기**’ 과정은 공공성과 창의성을 고민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등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한 공공행정의 문화적 인식 전환, 문화적 접근 사례 이해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재단이 이번 지원사업 공모를 위해 서울문화재단과 컨소시엄을 구성, 제주재단은 메가시티 서울의 예술적 치유를 위한 문화다양성을 제공하고, 서울재단은 정책트렌드에 조응하는 전문성을 제주에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은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처럼 국제자유도시이면서 지역공동체가 여전히 살아 있는 제주가 안고 있는 도심재생 등의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메가시티 서울과 협력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양 재단은 교육프로그램의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공유하게 된다.



현재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은 모두 23명. 이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가 6명, 나머지는 일반 문화예술 활동가 또는 문화예술 기획자들이다. 이들은 7주차 이론 강의와 두 차례의 공동워크숍(제주-서울 교차·공동 진행)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한 후 2개월간 현장실습(또는 프로젝트개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통해 선발된 우수교육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문화리더 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리더 양성과정’은 인문학 및 정신문화, 통섭 등 수준 높은 강의와 더불어 지역문화사업의 기획·운영 실무 전반을 다루는 토론 워크숍, 해외현장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킹을 강화하게 된다.

‘Art-Date Day’ 개최

문화예술인과 만나고 또 만나고... 소통 & 공감을 이룬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Art-Date Day’(아트-데이 트데이)이다. 재단이 올해부터 문화예술계와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상호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소통과 공감의 자리이다. 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장과 道 문화정책과와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된 ‘Art-Date Day’는

- 1차 (3월, 세이레아트센터)는 공연예술단체장 및 민간공연장 대표들과,
- 2차 (4월, 연갤러리)는 전시예술단체장 및 민간갤러리 대표들과,
- 3차 (5월, 제주문학의집)는 문학예술단체장 및 문학의집 관계자들과,
- 4차 (5월, 서귀포 예술의전당)는 서귀포 예총 및 회원단체장들과,
- 5차 (7월,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는 생활문화예술단체장들과 이루어졌다.

제주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행정과 재단에게 거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대와 요구사항, 어려움을 서로 소통하는 ‘Art-Date Day’는 앞으로도 꼭 이어질 예정이다.



3 _ THU

남상일과 함께하는
힐링 국악콘서트
09.03. 14:00/19:30.
제주아트센터

4 _ FRI

모니카와 함께하는
세계명화여행전
09.04.~11.29.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
실,
상설전시실

5 _ SAT

연극 '꼭두'
09.05. 18: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4층)

창작소리극 '상사화'
09.05.~09.06.
문예회관 소극장
민요패소리왓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우수작가 초청전
09.05.~09.10.
문예회관 제1,2전시실

9 _ WED

연극 '행복한 가족'
09.09.~09.11. 09:30
(금:16:00, 19:3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허튼굿
09.05. 18: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4층)

11 _ FRI

제12회 김현숙전
'나름대로 꽃'
09.11.~09.16.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17회 일구구오 정기전
09.11.~09.15.
문예회관 제2전시실
일구구오회

12 _ SAT

연극 '잊혀진 옥매산 광부의 죽음'
09.12.
문예회관 소극장
민요패소리왓 및 극단 미암

가족뮤지컬 '피터팬'
09.12. 13:00/17:00
제주아트센터

13 _ SUN

가족뮤지컬 '피터팬'
09.13. 14:00
제주아트센터

16 _ WED

제주전업미술가협회
제4회 회원전
09.16.~09.21.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전업미술가협회

17 _ THU

한·중·일 국제환경사진
문화교류전
09.17.~09.21.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환경사진연합회

19 _ SAT

M.I.SEA 콘서트
09.19.
제주한라체육관

22 _ TUE

제7회 삼다연서학회 회원전
09.22.~09.26.
문예회관 제1전시실
삼다연서학회

제9회 포스나인 기획사진전
09.22.~09.26.
문예회관 제2전시실
포스나인

24 _ THU

제주시사랑회 정기 시낭송
09.24.
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시사랑회

27 _ SUN

제9회 탐라서예문화회원 및
석정 윤덕현 회고전
09.27.~10.02.
문예회관 제1전시실
탐라서예문화원

제6회 현대여성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전
09.27.~10.02.
문예회관 제2전시실

29 _ TUE

2015 장윤정 콘서트
09.29. 14:00/17:00
제주아트센터
극단새아침

상설공연 & 전시

제주-아시안 현대미술 특별교류전

07.31.~11.08.

제주현대미술관 제1/2기획/특별전시실

김흥수 특별전시

08.04.~12.31.

제주현대미술관 특별전시실

박광진 특별전시

08.04.~12.31.

제주현대미술관 특별전시실

한국서각협회제주-인천서각교류전

08.31.~09.04.

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서각협회제주도지회

제3회 제주4인전

08.30.~09.04.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사인회

‘놀아라, 아이들’ 그림책 전시회

07.11.~09.05.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윤석남展

07.13.~09.06.

오백장군 갤러리

‘창고천의 원류를 찾아서’ 특별전

07.07.~09.30.

민속자연사박물관 특별전시실

내적 풍경의 재해석

08.01.~09.11.

갤러리 비오톱

베스퍼 권 개인전 ‘V’

~09.13.

팩토리소란

김영갑 추모 10주기 전시 ‘오름’

05.30.~12.31.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자작나무숲 열쑈 클래식

‘새별머슴과 민요를’

10.03. 18: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4층)

페인터즈 히어로

매일 10:00, 17:00, 20:00

일반 50,000원

사랑티켓회원(개인) 30,000원

(단체) 15,000원

한라아트홀

(주)펜타토닉

난타

매일 10:00, 14:00

일반 50,000원

사랑티켓회원(단체)

12,000~15,000원(협의)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주PMC)

제주 · 이르쿠츠크 · 바이칼

+ 글·사진 나기철 (시인)

25세의 시인 릴케가 14세 연상인 루 살로메와 베를린에서 출발하여 러시아의 모스크바, 키예프, 볼가강,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온 러시아 2차 여행은 그 전 해의 1차 때보다 훨씬 감미로웠을 것이다. 1차 때 루 살로메 부부와 셋이서 갔었으니까. 그 때 그들은 무엇을 타고 갔을까. 비행기는 아니었을 게고, 아마 열차이지 않았을까.

1899~1900년에 릴케가 갔던 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일 인천-이르쿠츠크를 우리는 비행기로 세 시간 반에 갔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생각했었지만, 작년에 거길 다녀온 희곡작가 ㄱ이 너무 지루하여 두 번 갈 건 아니라고 하는 말을 곧이듣고, 이르쿠츠크와 바이칼만 보기로 한 3박 5일의 간단한 여정이었다.

그 세기의 시인 릴케는 각각 한두 달의 러시아 여행 후, 그의 정신세계에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나에게는 열린 세계가 가능한 단 하나의 세계였고, 나는 그 이상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나는 러시아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는 나를 오늘의 나이게 했습니다. 나의 내면을 말하자면 러시아가 출발점이었습니다. 내 본능의 고향, 내 모든 기원은 그 곳에 있습니다.'(1916년 편지)

백여 년 전 연인과 함께 한 러시아 여행에서 시 세계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 20대의 릴케와 같은 그런 변화를 내가 기대할 수는 없다. 나는 연인과 동행하지도 않았거니와 아니, 할 수도 없었거니와 이미 미지에의 호기심이 많이 사그라진 '육학년생'이며, 일정도 짧고 일행은 거의 20명에 육박했으니까. 그 면면을 보면, 작년에 대학을 정년퇴직한 문학평론가 ㄱ선생 부부, 예닐곱 해 전 직장을 퇴직한 희곡작가 ㄴ형과 민속학자며 시인인 ㄷ형, 고교 졸업 후 40년 만에 귀향한 지 몇 해가 지난 한국 제일의 번역가 ㄱ형 부부, 고교 교사를 명퇴한 시인 ㄱ, 올해 중학교 교장에서 퇴직한 시인 ㄴ, 올해 교사를 명퇴한 시인 ㄱ과 몇 해 전 고교 교사를 명퇴한 시인 나. 그러고 보니 퇴직자가 많다.

허나, 이들이 구닥다리는 아니니, 손자를 본 후, 작업 연한을 66세에서 70으로 연장한 번역가 ㄱ형을 비롯하여, 밥벌이에서 풀려난 후, 자유롭게 오롯이 작가의 길을 걷고자 염원했던 이들도 많은 것이다. 그 외, 현업 중인 시인 ㄴ 부부와 소설가 ㄴ, 출판업의 ㄴ, 여성 애호가 몇이 함께 했는데, 이만



하면 가히 문화 예술인 집단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서린 식민지 시대만 해도 우리 문학의 영토는 꽤 넓었다. 해외인 일본의 유학생이었던 춘원, 횡보, 소월, 백석, 지용, 영랑, 기림, 동주, 순원 등이 떠오르고, 이번 러시아 바이칼호수가 배경으로 나오는 춘원의 소설 「有情」과 동명의 영화도 여행 중 자주 생각났다. 우리 영



화의 전성기인 1960년대 말, 청순가련형, 매혹적인 눈의 문희의 뒤를 이어 남정임이 나타났는데, 그 첫 작품이 「有情」이었다. 마침 그 작품을 읽은 후여서 소설 주인공 남정임에 흠뻑 빠져 있다가, 영화로 나타난 너무나 단아하고 고운 그녀의 모습에 한동안 가슴이 뜨거웠었다.

우리가 도착한 이르쿠츠크는 제주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유형지였었는데, 유배지였던 두 곳은 이제 각각 소위 국제 자유 도시로, 시베리아의 중심 도시로 크게 변했다. 거기서 바이칼호수 선착장까지 여섯 시간 평원을 달려가는 도중, 옆의 소설가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이거네!"했다. 릴케가 보았던 서부 러시아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바이칼호수,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민물 호수며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투명도가 뛰어난 호수(40m), 자그만 유람선을 탔을 때, 선원이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 컵으로 마신 물은 너무 맛있었다. 바이칼이 품고 있는 20여 개의 섬들 중 제일 큰, 제주도의 절반만한 알혼 섬 가 길 아닌 길을 덜컥거리는 구식 차를 타고 달리며 본 바

이칼호수는 장엄하였다.

여기 저기 샤만의 형꺈들이 걸려 흔들거렸다. 그 섬의 끝 벼랑에 서서 나는 구름에 가려진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며 저 세상을 생각했다. 문득 벼랑 뒤에서 배 한 척이 길을 내며 오고 있었다. 드넓은 바다 같은 호수에 자국을 남기고 그 작은 배는 이내 사라졌다. 얼마 후 그 자국도 사라지고 바이칼은 다시 유리 같이 말갹게 거기 있었다.

‘거기 너를 두고//바이칼에 와/절벽 위에서/구름 가려진/피안을 본다//입에 악기를 문/여인이 왔다 가고/바닷새/돌다가 갔다//문득/물을 가르며/작은 배/지나간 곳//수많은/오션지 결들이/소리를 내며/한참 있다가/사라졌다

(출시, 『天海』)

문화누리카드

2015 발급·사용 안내서



201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하나. **개인별** 카드발급 (연간 5만원)
- 둘. 신청자 **전원발급** (예산범위 내)
- 셋. 발급은 **12월 31일까지**, 사용은 **16년 1월 31일** 까지!!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프로스포츠 관람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포함)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 2009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카드발급기간 (연장)

- 온·오프라인 2015년 7월 1일(수) ~ 12월 31일(목)
- ※ 온라인 신청시 본인 인증수단(핸드폰, 공인인증서)이 필요합니다

» 카드사용기간 : 발급일 ~ 2016년 1월 31일

» 발급방법 안내

- 하나. 주민센터(오프라인)
 - 신청서 작성 · 제출(신분증지참)→자격확인→발급(7일)
- 둘. 홈페이지(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회원가입→카드신청→자격확인→수령방법선택(자택/농협영업점 방문)→카드수령(15일 이내)→수령등록 후 사용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17개 시·도 지자체
복권위원회

정부는 3.0
[국민 · 문화 · 사회 · 정책]

